

2021 **06** Vol. 372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신 령



산을 바라보는 일은 편하다.
똑같은 곳이고 한눈에 모두 보인다.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가려도
단순한 감정 하나로 오랫동안 충분히 교감한다.

사람은 어렵다.
바뀌고 달라지는 마음 때문에
실수할까, 오해할까
다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확인한다.
그래도 잘 몰라서 다가가지 못한 채
다시 돌아선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신뢰
- 03 차례
- 04 강의/ 김형신(이냐시오) 신부
개정회칙에 드러난 재속회의 자율성
- 09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3)
- 12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4)
- 16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7)
- 19 옹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고통이 영원한 지옥
- 20 영혼의 성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6)
- 24 어두운 밤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6)
- 28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나는 그대의 것
- 31 가르멜로 74-56길/ 성소 위원회
봄은 왔건만 봄같지 않구나
- 32 선교/ 권상균(아우구스티노) 신부
오쿠무라 신부의 영적 여정
- 35 기행문/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
- 40 회원의 글/ 김순상(베로니카)
오래된 나의 정원
- 38 회원의 글/ 박계용(도미니카)
찢어진 옷자락
- 42 공동체 이야기/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
함께 갑시다
- 45 회원의 글/ 서울 마르가리타 공동체
아름다운 만날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7)
2021년 8월 영적나눔
- 48 마음의 샘
- 49 비둘기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 자비(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2호 (2021 6,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장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강의 *

한국 가르멜 재속회 “개정 회칙” 안에서 드러난 재속회의 자율성에 관하여

김형신(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지난 회기(2017-2019년) 동안 재속회 회칙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회기 말에 개정된 회칙을 로마 총 본부로 보내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2020년 1월) 그리고 로마 총 본부에서는 개정 회칙 안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주면서 개정 회칙에 대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2020년 3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 승인을 받은 개정된 회칙을 통해 기존의 회칙과 비교하여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어떤 점이 강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영어 원문과 회칙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 총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종 회칙 안에서 변화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hould 를 Might 로

이것은 결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7,4 청원기 결석; 10,6 수련기 결석; 13, 5 단순 서약기 갱신 결석; 14,4 종신 서약 후보자 결석; 27, 공동체 모임 결석) 회칙 7,4: 10,6: 13,5: 14,4: 27,1 에서 should를 might로 바꾸었습니다. 27,1에서는 shall을 may로 바꾸었습니다. Should를 might로 바꿈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27,1에서는 ‘허락을 받는다.’ 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뀔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칙이 변경되었습니다.

7조 4항, 10조 6항, 13조 5항, 14조 4항 부득이한 사유¹⁾로 결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관면 받을 수 있으나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 대리 사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앞서 2회 결석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 관면 받을 수 없다. (개정 전)

부득이한 사유²⁾로 결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관면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여 관구장 대리 사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앞서 2회 결석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 관면 받을 수 없다. (개정 후)

27조 1항

연령, 질병, 거리 또는 다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참사회와 협조사제가 상의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관구장 대리사제의 허락을 받는다.(개정 전)

연령, 질병, 거리 또는 다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참사회와 협조사제가 상의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관구장 대리사제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1)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교통사고, 직계 조·경사, 위급한 수술
2)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교통사고, 직계 조·경사, 위급한 수술

사실 Should는 ‘-해야만 한다’는 Must 의미가 포함된 동사여서, 총본부에서 이것을 Might로 바꾸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Might로 바꾸라는 말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총본부에 계시는 재속회 담당 총장님 대리 신부님이신 Alzinir Francisco Debastiani 신부님께 문의를 했을 때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 가르멜 재속회 규정들 개정애 가해진 최고 평의회에 의한 수정 부분을 살펴봅시다. 우리 회의 재속회의 목적은 문서 “재속회의 사목적 돌봄” (2006)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재속회에 부여된 자율성을 왜곡하는 극단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재속회 편에서의 지나친 독립성이거나 지나친 의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편에서의 관심 부족이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극단적인 행태들 안에서는 회헌이 정한 대로 행해져야 할 회의 합법적 장상들의 지도 아래 협력에 실패와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이는 또한, 교회와 우리 회가 원하는 성장과 책임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재속회가 하나의 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재속회가 어른으로 있게 하는데 방해하고, 재속회가 세계에 가르멜 영성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역량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비추어 보아, 규정에 가해진 수정들이, 우리 회의 문서들에 따라, 평신도의 책임(감)과 공동체들을 인도하면서 지역 참사회가 갖는 권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 질문에서, ‘might’ 로 고치는 이유는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르멜 재속회에 대한 권위(권한)는 총장, 관구장과 지역 참사회에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서는 재속회의 자율성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율성을 통해서 재속회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로서는 재속회 편에서 본다면 지나친 의존과 지나친 독립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회 편에서 본다면 관심부족 그리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벗어나, 한국 가르멜 재속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고, 또한 공동체의 참사회가 가지는 권위를 정확하게 규정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should에서 might로 변환된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석에 있어서 참사회는 협조사제와 상의하되 굳이 관구장 대리 사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32조 4항의 첨가 및 35조의 수정

회칙 제5장은 관구 참사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32조에서 38조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칙 32조는 원래 1항부터 3항까지 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4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관구장 대리사제와 협조사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32조 4항

관구장 대리사제와 협조사제의 역할은 교회와 수도회의 가르침에 따라 재속회 회원들의 성소와 사명을 위한 영적, 사도직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관구 재속회와 단위 공동체들을 이끄는 것은 관구장과 지역 공동체 참사회의 소관이다.

참고로 협조사제에 대해서 회헌 44조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각 공동체의 영적 협조 사제(Assistant)는 본회 수도자가 담당한다. 영적 협조 사제

(Assistant)의 임무는 공동체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성소에 합당하게 인도 받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회헌 44조)

각 단위 공동체에 대한 협조 사제의 목적은 가르멜 영성의 나눔과 증거를 통해 단위 공동체와 가르멜 수도회 그리고 교회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단위 공동체의 초기 양성과 지속기 양성에 협력하는 것이고, 재속회와 수도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속회의 사목적 돌봄(2006))

또한 35조 관구 참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구장 대리사제를 뺐습니다.

35조 ① 관구 참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의장
- ㉡ 참사 3명
- ㉢ 교육참사
- ㉣ ~~관구장 대리사제~~

3. 식별에 있어서 협조 사제에 관한 부분 삭제 (10조 4항, 14조 2항)

회칙 10조 4항은 수련기에서의 식별이고, 회칙 14조 2항은 단순 서약기에서의 식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0조 4항

참사회와 협조 사제는 단순서약 예식 1개월 전에 후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에게 가르멜 성소가 있으며,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서약을 허락한다. (개정 전)

참사회는 단순서약 예식 1개월 전에 후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에게 가르멜 성소가 있으며,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서약을 허락한다. (개정 후)

14조 2항

참사회와 협조사제는 종신서약 후보자가 종신서약 예식 1개월 전에 면담을 통해서 인간적, 영성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인정되면 종신서약을 허락한다. (개정 전)

참사회는 종신서약 후보자가 종신서약 예식 1개월 전에 면담을 통해서 인간적, 영성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인정되면 종신서약을 허락한다.(개정 후)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서 단위 공동체 회원의 식별에 대해서 참사회가 가지는 권한을 확실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협조사제가 식별에 참여하였지만, 이제는 식별은 참사회의 고유 권한이 되었습니다.

4. 양성 교육에 있어서 참사회 혹은 관구 참사회의 역할 강조 (5조 3항, 16조, 35조 1항)

5조 3항은 지원기, 16조는 지속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5조 1항은 관구 참사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조 3항

지원기 양성교육은 3개월이며 참사회에서 담당한다. (개정 전)

지원기 양성교육은 5개월이며 참사회에서 양성 책임자를 결정한다. (개정 후)

16조

참사회는 협조사제의 도움을 받아 종신서약자의 지속적인 양성교육을 연 1-2회 실시한다. (개정 전)

참사회는 종신서약자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후)

35조 1항

한국관구에 속해 있는 단위 재속 맨발 가르멜회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를 구성한다.(개정 전)

맨발 가르멜 수도회 한국관구에 속해 있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는 단위 공동체들의 양성과 사도직을 돕기 위한 관구 참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후)

5. 참사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림 (51조 1항-4항)

회칙 48조에서 54조까지는 참사회에 해당하는 회칙입니다. 51조에서는 참사회의 주요 업무를 새롭게 추가시켜서 다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51조

참사회는 회헌 47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① 공동체의 성장과 효율적인 양성에 매진한다.
- ② 공동체 내에서의 사도직을 활성화시킨다.
- ③ 공동체의 정책과 방향을 계획한다.
- ④ 정기 및 임시 참사회의, 총회 안건을 준비한다.

이렇게 참사회의 주요 업무를 새롭게 규정 내린 다음, 기존 참사회의 참사 및 수련장이 관리부, 전례부, 총무부, 교육부로 나누어 맡았던 부분들을 따로 참사회가 부서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1조 7항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참사회는 각 부서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책임자는 임시 참사회의 전에 업무에 관한 서면 보고를 한다.

이렇게 참사회의 주요 업무가 새롭게 추

가 되고, 전례참사, 총무참사, 관리참사라는 호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가르멜 회보(2020.2월호)에 지난 회기 관구장 대리 사제이셨던 조운용 엘리야 신부님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사모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처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들은 회헌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헌 24조 5항)

그러므로 개정회칙에서 한국 관구 재속 가르멜회가 유일무이하게 조직하고 있는 ‘관리참사’ ‘총무참사’ ‘전례참사’ 직을 없애고 ‘관리부장’ ‘총무부장’ ‘전례부장’ 직을 들으로써 전 회원들에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참사회는 이들 활동에 대한 보고만을 받음으로써 참사회의 본연의 사명인 ‘양성과 기본적 공동체 운영’에 투신하게 하였습니다. 참사회의 주된 임무는 공동체 회원을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으로 양성하고 성숙시키는 것이다.(회헌 46조) 참사회는 소관 공동체의 성장과 양성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자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임을 가진다. (회헌 47조 7항)

이번 총회에서 심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도 회장이나 참사 그리고 수련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사회의 일들이 과중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참사회의 일원이 되면 가정과 직장과 본당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되어 많은 시간을 내서 투신해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 참사들이 하는 일 중에서 부서장의 역할을 없애고, 기본적인 공동체 운영에 대한 결정과 양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참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수도회와 협조 사제들 중심의 재속 가르멜회 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관구 참사회를 중심으로 단위 공동체가 모여 한국 재속 가르멜 전체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회 중심으로 즉 협조사제와 관구장 대리사제 및 관구장과 관구 참사회가 주로 움직이고 단위 공동체는 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면 이제는 관구 전체의 양성 프로그램과 양성 교재 설정 및 번역 등에 단위 공동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정 회칙에 따라서 참사회에서 새

롭게 관리부장, 전례부장, 총무부장을 두는 단위 공동체는 저의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위 공동체에서는 기존의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참사회에서 새롭게 주어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전례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고, 참사들도 회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례부, 관리부, 총무부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주요 업무가 주어진 취지는 참사의 본연의 임무인 ‘공동체 회원을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으로 양성하고 성숙’ 시키는 일에 조금 더 투신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직체계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3)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제5부: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해체와 부활

제1장: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르멜의 해체

2.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마지막 시기

수도원들을 비롯해 그곳에 사는 수도자들은 자신이 몸담고 사는 어느 국가의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세속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고독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 시대와 국가를 관통하는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사조들로부터 암암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도자들은 서로 갈라서기도 한다. 이 경우, 아무리 수도회의 장상들이 선의를 갖고 있다 해도, 수도회를 하나로 일치시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19세기 초반에 스페인 맨발 가르멜에서 일어났다. 1824년 당시 개최된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총평의회는 그 해 5월 22일 「개혁 규범」을 만들어서 각 관구에 배포했다. 당시 총장인 안드레스 데 헤수스 마리아(Andrés de Jesús María) 신부는 그간 반교회적인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강제로 봉쇄해제를 당해, 세속에 살고 있던 회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수도회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그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스페인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회원들이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1830년 파스트라

나 수도원에서 마지막 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톨로메 데 라 콘셉시온(Bartolomé de la Concepción) 신부가 총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바르톨로메 신부가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특별 총회를 개최해서 페드로 델 카르멘(Pedro del Carmen) 신부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830년 총회나 특별 총회에서는 상당한 낙담과 실의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수도회의 개혁을 독려하는 선언들이 많이 준비되었지만, 이로 인한 실효는 거의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 두 총회는 모두 그 이전의 여러 총회에서 이미 선언된 개혁 규범들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그 힘을 잃고 저물어가고 있었다.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18세기 중반, 1742년부터 1748년까지 디에고 데 산 라파엘(Diego de San Rafael) 총장 신부 시절에 데레사주의(teresianismo)로의 회귀를 통해 수도회의 쇠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참조.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12권, 25-51). 이어서 18세기 말에 회헌에 대한 수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수도회의 쇠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반교회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된 지속적인 봉쇄해제 조치로 인해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점점 피폐해 갔으며,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헐적으로 시도된 수도회의 쇠신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2.1. 스페인 맨발 가르멜 내에서 봉쇄해제의 영향

19세기 전반기의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스페인 내의 여타 모든 수도회들과 같은 위기와 운명을 겪어야 했다. 즉,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폐쇄되고 말았다. 물론, 수도회 산하 모든 수도원이 같은 날 폐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39년에 단 한 개의 수도원을 제외하고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했던 수도원은 스페인 동부의 카스테욘(Castellon)에 있는 엘 데시 에르토 데 라스 팔마스(El Desierto de las Palmas)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스페인 맨발 가르멜로부터 몰수한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다. 수도회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검소하고 소박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인적 자산, 즉 수도회의 회원들이었다. 수도회가 폐쇄될 당시 스페인에는 2,106명의 남자 가르멜 회원들이 있었다. 그 중에 1,071명이 사제 회원이었으며, 124명이 부제와 차부제였고, 342명의 유기서원자가 있었으며, 91명의 수련자와 478명의 평수사가 있었다. 정부에 의한 폐쇄 조치로 인한 타격은 당시 수도회에 치명적이었다. 회원들 중에 연로한 회원들은 대부분 가르멜 수녀원의 지도신부나 고해사제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으며, 일부는 곳곳의 본당 신부로 살아갔다. 그리고 일부는 미사와 성사 집전에 전념하기도 했다. 또한 그 중에는 여러 학교의 교수나 선생으로, 심지어 여러 가정의 개인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회원들은 이태리나 멕시코로 건너가기도 했다.

당시 소수의 스페인 가르멜 회원들은 재속 사제의 옷을 입고 수도회 소속 성당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가르멜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염원했다. 바로 이들에 의해 훗날 스페인 맨발 가르멜이 부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시기에 수도원에서 막 서원을 하고 정부의 봉쇄해제 조치로

인해 안타깝게도 수도원을 떠나야 했던 젊은 회원들 중에는 데레사적인 수도생활의 이상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관구로 갔던 수사들이 있었다. 훗날 스페인 내에 가르멜이 복원된 것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였다. 이들 중에 특별히 두드러진 인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도밍고 데 산 호세(Domingo de San José) 신부로, 그는 훗날 프랑스 관구를 바탕으로 스페인 내에 맨발 가르멜을 복원할 당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스페인 맨발 가르멜이 이태리 맨발 가르멜에 흡수, 합병되어 이태리 맨발 가르멜로 재탄생한 이후, 총장에 선임되어 수도회를 이끌었다. 다음으로, 마누엘 데 산타 데레사(Manuel de Santa Teresa) 신부, 페드로 호세 데 헤수스 마리아(Pedro de José de Jesús María) 신부를 들 수 있다. 또한 프란치스코 데 헤수스 마리아 이 호세(Francisco de Jesús María y José) 신부를 들 수 있다. 그는 다름 아닌 복자 프란치스코 빨라우 이 케르(Francisco Palau y Quer)로, 전교 가르멜 수녀회의 창립자이다. 그의 일생은 그가 살던 동시대의 사람들을 비롯해 특히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이 격동의 시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엿보게 한다.

스페인 맨발 가르멜이 폐쇄되기 직전에, 이 수도회에 속했던 관구들은 7개로 다음과 같다:

- 카스티야 라 비에하의 성 엘리야 관구
- 카스티야 라 누에바의 성령 관구
- 안달루시아 라 알타의 성 앙헬로 관구
- 아라곤 이 발렌시아의 성녀 데레사 관구
- 안달루시아 라 바하의 십자가의 성 요한 관구
- 나바라의 성 호아킨 관구
- 무르시아의 성녀 안나 관구

1838년 스페인 정부는 봉쇄해제된 수도

자들에게 칙령을 내려 그들을 한시적으로 (ad tempus) 환속한 자들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생계를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었다. 1835년 수도회가 폐쇄되기 직전에 2,106명을 헤아리던 회원들 중에 상당수는 흩어지고 1868년에 이르러 그 중에 약 400~5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금지령으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 없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연로하거나 병을 앓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봉쇄해제 이후에도 가르멜 성소를 유지하며 생존했던 회원들 중에 소수만이 1875년에 이태리 맨발 가르멜과의 합병을 통해 수도회 복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스페인 맨발 가르멜이 폐쇄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총대리(Procurador general)인 파스칼 데 헤수스 마리아(Pascual de Jesús María) 신부는 로마로 떠났으며, 스페인 맨발 가르멜과 이태리 맨발 가르멜이 합병될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계속 총대리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합병 전까지 몇몇 스페인 젊은 회원들과 더불어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총장이던 페드로 델 카르멘 신부는 1853년 하엔(Jaén)에서 수도회의 복원을 보지 못한 채 임종하고 말았다. 그의 사후, 후안 데 산토 토마스 데 아퀴노 말도나도(Juan de Santo Tomás de Aquino Maldonado) 신부는 그의 후임자로서 1875년 이태리 맨발 가르멜과 합병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3.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 수도회

맨발 가르멜 역사상, 스페인 맨발 가르멜과 이태리 맨발 가르멜 이외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소위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존재했었다. 포르투갈 지역은 본래 스페인 맨발 가르멜 소속의 안달루시아 라

바하(Andalucía la Baja) 관구에 속했다가, 1612년 그 관구로부터 독립해서 ‘포르투갈 관구’로 승격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773년 ‘가르멜의 우리 성모님’(Nuestra Señora del Carmel)을 수호자로 모시고 ‘포르투갈 맨발 가르멜’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수도회 역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정부의 수도회 재산 몰수로 인해 1834년 폐쇄되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맨발 가르멜이 포르투갈에 처음 진출한 것은 1581년으로, 당시 안달루시아 관구의 수사들은 리스본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맨발 가르멜 수녀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포르투갈에 진출했다. 그러나 점차 안달루시아를 비롯해 포르투갈 내에 많은 수도원들이 설립되면서 관구 내의 통치에 대한 어려움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관구의 관할 지역이 넓은 데다, 통치의 범위가 스페인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10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총장인 알론소 데 헤수스 마리아(Alonso de Jesús María) 신부는 포르투갈 관구에 대한 설립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르투갈 관구는 사도 성 필립보를 수호자로 해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갖고 있던 해외의 영토도 이 관구의 관할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신대륙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앙골라, 인도의 말라바르 해변, 스페인 서부의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이 해당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4)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 마리오 신부 옮김

1. 알랑송

작은 희망

그러나 점차 그 고집불통 여자아이는 유순해졌으며, 마침내 젤리는 자기 올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낼 수 있었다.

난 레오니가 꽤 마음에 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애 고집을 꺾고 성격을 부드럽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애 착한 여자애가 될 거야. 성실하면서도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애가 되겠지.

그 애는 의지가 강해. 무언가를 원할 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이라도 통과해서 나아가려고 분투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 애 신앙심이 깊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주님께 기도드리려고 하질 않아. 오늘 오후에 난 그 애를 내 옆에 오게 해서 기도문 몇 개를 읽게끔 했지. 하지만 그 애 얼마 안 있어 충분히 다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어.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말해줘.” 처음엔 난 말해주고 싶지 않았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리거든. 왜냐하면 난 늘 목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 결국 난 애를 써서 그 애에게 우리 주님의 생애를 말해주었어. 주님의 수난하심에 이르렀을 때, 그 애는 눈물을 글썽였지. 난 그 애가 그렇게나 감동받은 것을 보고 마음 흐뭇했단다.

이제 거의 열여섯 살이 된 마리는 학업

을 끝마쳤으므로, 집에 머물면서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야 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폴린 혼자 새 학기를 맞이하려 르망으로 되돌아갔다. 당당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어머니인 젤리는 사랑하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마리에게 줄 완전히 새로운 옷 한 벌을 사느라 어제 아침시간을 다 써버렸구나. 굉장히 예쁜 드레스와 코트였는데 마리가 정말 많이 좋아했단다. 이제 난 레오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구나. 난 그 애한테 네 드레스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리는 레오니에 비해 너무 우아해 보일거야. 두 애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데 말이지.”

“레오니는 정확히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한다”

레오니는 두 번째 장엄 영성체를 준비 중이었다. 다시 한 번 순백색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레오니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지금까지 레오니는 영성적인 측면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에 더 큰 인상을 받았었지. 하지만 그 애 다른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한단다. 그럼에도 그러한 삶은 그 애에게 단지 표면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러면서 걱정스러워하는 어머니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우린 하느님께서 그 애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거라고 희망해야만 해. 난 그밖에 다른 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단다. 다시 말해, 난 마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마리는 레오니와는 아주 정반대로 나를 기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몇 주 후, 마르탱 부인은 다시 한 번 폴린에게 가엾은 레오니가 자기에게 야기한 고통에 관해 편지를 썼다. “난 그 애와 함께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애는 정확히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 애는 막 내가 편지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단다. ‘엄마, 이모한테는 나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하지 마. 난 잘할 테니까.’ 내가 그 애에게 대꾸하지 않았더니, 고집을 부렸단다. 내가 편지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다음에, 난 이렇게 말했지. ‘아니, 난 너에 관한 어떤 것도 이모에게 말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단다. 왜냐하면 난 이모가 아니라 너한테 편지 쓰고 있었기 때문이지. 글썄, 매일의 삶이 이런 식이란다, 그리고 확실히 쉽지 않지.”

제멋대로인 작은 반항아는 자기의 아주 지독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다리면서 자기의 완고함이 누그러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레오니는 불안해하면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엄마, 나 사랑해? 더 이상 엄마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을게.” 레오니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결심을 했지만, 그런 결심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우리가 여기 없을 때 그 애는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오니의 앞날에 대해 걱정스러워했다.

젤리의 언니는 젤리에게 새해 연휴 동안 르망에 레오니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다. 젤리는 “그 애를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일까? 만약 언니가 기적

을 일으킬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지” 라는 답을 했다.

앞날에 대한 젤리의 근심은 점점 늘어갔다. 왜냐하면 유방암으로 인해 더더욱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녀에게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가엾은 젤리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1876년 12월에, 그녀는 올케에게 편지를 썼다. “마리는 이제 다 성장했단다. 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 그 애가 집안을 아주 잘 꾸려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폴린 역시 호감이 가는 아이지. 셸린은 크나큰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 데레사는 진짜 작은 천사란다. 레오니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그 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그분께서 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단다. 내가 떠날 때, 네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애들에게는 행운일 거야. 너의 좋은 충고가 그 애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겠지.”

성소를 위한 기도

1877년 1월에, 젤리는 (언니인) 마리 도시페 수녀가 심하게 아파서 방문회 수녀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문안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마리 도시페 수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알랑송으로 돌아온 후에, 젤리는 올케에게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레오니에 대한 자신의 끊임없는 걱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내가 언니에게 건네준 천국행 메시지가 여기 있단다. 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지. ‘언니가 천국에 있게 되자마자, 가서 복되신 동정녀를 찾아보고 그분께 다음과 같이 말해 줘.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께서 제 여동생에게 가엾은 레오니를 보내셨을 때

한 가지 속임수를 잘도 쓰셨네요. 그 애는 제 여동생이 당신께 청했던 부류의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열흘이 지나, 마르탱 부인은 다른 편지를 리지외로 써 보냈다.

레오니가 올케 너한테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했지만 온데간데없구나. 하지만 그 앤 곧 너한테 편지를 써 보내야만 할 거야. 마리가 레오니와 셸런의 학업을 지도하고 있는데, 레오니를 마음에 들어 한단다. 어제, 레오니가 마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 “난 르망에 계신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쓰고 싶어. 왜냐하면 난 이모한테 천국행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싶거든. 난 이모가 하느님께 청해서 나한테 수도 성소를 보내주시도록 하고 싶어.” 마리는 레오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는 놀리는 척했다. 하지만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단언을 했다. “난 모두가 날 놀린다 해도 상관하지 않아. 난 이모가 죽기 전에 이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

바로 오늘, 그 앤 편지를 썼단다. 누군가가 그 애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주는 일 없이, 모두 그 애 혼자 힘으로 말이지. 레오니가 쓴 편지 내용은 이렇단다. “저의 사랑하는 이모, 전 이모가 주셨던 그림을 성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전 매일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이모가 제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순종하게 되려고 해요. 마리가 저를 위해 그 그림 액자를 만들어주었어요. 저의 사랑하는 이모, 이모가 천국에 있을 때, 하느님께 청해서 제게 회개의 은총과 또한 진짜 수도자가 되는 성소를 주시라고 청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성소에 대해 매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제발, 제 작은 메시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전 하느님께서 이모의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저의 사랑하는 이모. 이모에게 저의 모든 사랑을 보내요. 이모의 사랑스러운 조카, 레오니로부터.”

“전 성녀가 될 거예요”

젤리는 올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레오니의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난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해야만 하겠지. 세상에, 그 애가 그런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확실히 난 그런 생각을 그 애 머리에 넣어주지 않았어. 사실, 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레오니가 절대로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단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애의 미래인 거지. 계속해서 난 자문하고 있단다. “내가 없다면, 그 앤 무엇이 될까?” 라고. 난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그 애의 작은 편지가 정말 내게 신선한 용기를 주었고, 아마도 하느님께는 그 애를 위한 자비로운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희망하고 있단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 애를 성녀가 되게 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같은 기간 동안, 젤리는, 암 때문에 더욱 더 고통스러웠으며, 르망에 위치한 기숙학교에 머물고 있던 폴린에게 레오니의 신비스러운 요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다. “난 네 이모가 레오니에게 짧은 편지를 써 보내줄 거라 희망하고 있단다. 그건 정말 한 편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젤리는 자신이 올케에게 썼던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다.

목요일에, 레오니는, 내 생각엔 그 애로서는 꽤 괜찮은 짧은 편지를 썼단다. 그날 저녁에, 난 마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 “난 레오니가 ‘진짜 수도자’ 라고 쓴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단다” 라고. 마리 또한 깜짝 놀랐었지. 마리는 “전 레오니가 ‘진

짜' 라는 말을 지우길 바랐어요. 그래서 전 레오니에게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애는 고집을 부렸지요. 레오닌 '제발, 그 말을 집어넣게 해줘. 난 그렇게 되려고 그 말을 (쓰길) 원했던 거란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마리가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지.

" '진짜' 수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레오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단다.

"그건 내가 아주 훌륭한 수도자가 되어서 성녀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라고 말이야.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그 가엾은 아이는 완전히 잘못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하지만 하느님께선 정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늘 희망을 간직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란다.

어제, 그 애는 아주 지독한 하루를 보냈지. 그 애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쁘게 해버렸단다.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애를 호되게 야단쳤지. 난 레오니에게 이런 상황에서 수도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애에게 있어 아주 주제넘은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애는 울고 또 울었지. 진정한 회심의 눈물이었단다. 잘 지내렴, 폴린. 난 정말 레오니가 적은 짧은 편지를 좋아할 것 같다. 그 가엾은 아이는 매일 아침 6시마다 피정을 위한 지침으로 되돌아왔단다. 그 애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두려워했지. 난 그 애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혼자 알아서 일어났단다.

반항하는 사춘기 소녀

마르탱 부인은 여전히 당황스럽게 하는 딸을 걱정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허물없는 벗인 (둘째 딸) 폴린에게 고민거리를 써 보냈다. 그녀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면서 단지 레오니가 늘 가엾은 어머니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무엇이나 해버린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언급할) 뿐이었다. "그 애가 더 성장할수록, 그러한 사실이 더욱 더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1877년 2월 24일, 레오니 이모 엘리제가 세상을 떠났다. 마르탱 부인은 자신과 레오니가 엘리제에게 위탁했던 메시지가 그들이 청했던 은총을 가져올 거라고 희망했다. 다시 말해서, 레오니 이모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레오니를 위해 기적을 얻어줄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희망을 간직한 채, 마르탱 부인은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레오니는 여전히 깊어지기에 무거운 십자가란다. 네 이모가 그 가엾은 아이 안에 일으킬 어떤 변화를 얻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사실상 레이스 제조업에 종사하느라 과로하고 있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더 더욱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마르탱 부인은 상당히 거친 자기 아이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마르탱 씨의 경우에는, 레이스 제조업의 판매 분야에 힘겹게 몰두하고 있었으며, 종종 파리로 출장가야 했다. 그래서 그는 레오니의 양육에 아주 미미하게 관여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슬프게도,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부모는, 아이들 양육의 경우처럼, 집 안에서 활용 가능한 사람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레오니는 종종 하녀인 루이제 마라이스와 함께 있었는데, 루이제는 16살 때였던 1865년에 마르탱 부부가 고용했었다. 그래서 그 아이(레오니)는 자기 어머니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며, 어머니와 딸 사이의 분리 간격은 더 넓어졌던 것이다. 레오니는 자기 언니들과는 다르게 열의가 넘치는 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의 향기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27)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권

3. 새로운 인품, 새로운 가치 목록

법열은 언제나 짧게 이루어진다. 반면, 합일(“시작이자 중간이며 마지막”)의 상태는 지속적이며 하느님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고통은 “아주 일상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의 삶과 인품을 다시 형성해준다. 성녀 테레사의 인품은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형성된다. 특히 이는 그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이 관계가 내포한 향주적 관계, 우정과 육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심지어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형성된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향주적인 상황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이 체험의 중심에 있는 성녀 자신은, 하느님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주님으로서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심을 느낀다. “그는 이미 제 뜻을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마저도 원치 않습니다.¹⁾ 따라서 그는 하느님께 이 은혜를 간청하며 자기 의지의 열쇠를 하느님께 넘겨드립니다.”(22절). “영혼이 이 신성한 태양을 바라보면 광채로 인해 눈이

부십니다… 열매를 나누는 분은 정원의 주인이지 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선을 하느님께 돌려 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악을 제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원치도 않는데 세상 사물엔 절로 눈이 감기고 반대로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려 있습니다”(29절).

그는 개인적으로 흑독하면서도 감미로운 순교를 살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천상을 향해 날아가게 해주는 날개가 새로 돋는 중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서 낡은 솜털들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이 요새(要塞)의 사령관은 하느님의 깃발을 달기 위해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림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안전한 자리를 차지한 자로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봅니다. 이제 그는 위험을 원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승의 온갖 것이 얼마나 하찮고 시시한 것인지 아주 분명히 보고 그 덧없음을 발견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는 많은 것을 발견하는 법입니다”(22절). 다시 말해, 성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뛰어난 상황, 특히 깃발이 달리는 이 상징적인 탑에 오른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성녀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비롯해 사람들 그리고 제반 사물들과 맺는 관계는 철저히 달라지고 만다. 성녀는 자신에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 주어졌다고 표현하며 이를 언급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하느님은 이 영혼을 이승의 온갖 것에 아무런 관심을 품

1) 『자서전』 원본의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밍고 바네스 신부는 당시 이 작품을 검열한 종교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자 아주 세심한 신학자였다. 그는 이 부분에서 성녀가 쓴 “자유의지마저도 원치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해서 다음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우리 주님의 뜻 이외에는 다른 뜻을 원치 않습니다.” 레온의 루이스 수사는 이 기준에 따라 문법적인 요구에 맞춰 문제가 된 이 구절을 수정했다.

지 않게 해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영혼은 자기의 반려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 얻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기가 영혼은 반려가 될 벗을 원치 않고 고독 속에서 죽는 것만을 동경합니다.”(9절). “주님께서 이런 상태에 들어 높여 준 영혼의 지배력이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봅니다.”(25절).

이제 여기서 성녀에게 새로운 가치 목록이 주어진다. 한편으로, “그는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에 젖어 있는지 알리기 위해 목청을 돋우어 부르짖고 싶어합니다… 그는 선을 원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25절). 이와 동시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던 세 가지 사회적인 재화들의 의미가 성녀에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명예(honra), 돈(dinero), 쾌락(placer)이다. 성녀가 새로 받아들인 가치 목록은 분명했다:

“그는 명예를 바라보기만 했던 때를,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도 진짜 명예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26절).

“영혼은 한때 돈을 소중히 여기던 것과 돈에 대한 탐욕을 가졌던 것을 되새기며 자신을 비웃습니다.”(27절).

“영혼은 쾌락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지 그리고 이 쾌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이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승에서도 얼마나 많은 근심을 초래하는지 봅니다. 그 얼마나 기막힌 근심이며 얼마나 하잘것없는 만족인지! 그리고 얼마나 헛된 수고인지 모릅니다”(28절).

결국, 성녀 데레사는 삶에 있어서 지배력, 자유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경험을 얻

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저는 제 체험으로 알고 본 것인데, 영혼이 모든 피조물 위에 지배권을 잡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23절). 이에 성녀는 보다 힘차게 주님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며 자신이 얻은 영적인 결실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형제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묘사된 성녀의 모습은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에 살던 시절의 성녀의 모습이다. 『창립사』 제1장에 소개된 성녀의 한가로운 모습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4. 20장에 대한 메모들

1) 신비체험과 관련된 어휘: 성녀는 본 장의 초입에 제시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유사어들로 소개했다(“결국 모두 같은 것입니다”[1절], “이런 명칭은 같은 것을 뜻하며 이걸 또한 탈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성녀는 각각의 용어가 지닌 뉘앙스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들을 구별했다. “제가 보기에 범열(arrobamiento)과 정지(suspensión)는 전적으로 하나입니다”(보고 54, 7); “범열(arrobamiento)과 탈취(arrebatamiento)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보고 54, 8) 또한 성녀는 ‘영의 비상(vuelo del espíritu)’(보고 54, 10)과 ‘격렬함(impetus)’(보고 54, 11) 사이에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녀는 『영혼의 성』에서 이와 관련된 병행구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6궁 4장 제목).

2) 텍스트의 연대: 『자서전』에 소개된 성녀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본 장은 성녀가 이 시점(1565년 말)까지 경험했던 일련의 일들 가운데 마지막 사건을 전하고

있다. 이 시점 바로 전에 노골적인 벌열은 중단되었으며(5절), 성녀는 이 시점에서 하느님의 부재(不在)로 인한 고통을 밀도 깊게 감내하며 살고 있었다(9절). 성녀는 머지않아 닥쳐올 가능한 죽음에 대한 환영으로 고통스러워했다(13절). 하지만 성녀는 훗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며 본문의 여백에 각주를 첨가했다(원본의 55장 앞). 여기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런 격렬함은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들 이후에 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각주 15의 마지막 부분). 하지만, 이어지는 여러 장(예컨대, 32-36장)이 연대적으로 볼 때 선행하는 사건들을 언급한다 해도, 성녀는 본 장에서 언급된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사건들을 써내려갔다.

- 3) 본 장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 본 장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은 6개 이상 된다. 그 구절들은 모두 성녀의 체험과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 구절들 중에는 특히 시편이 우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4개의 인용구가 시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성녀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알렸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로망스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친 후, 주님이 제 편에서 힘들이지 않고도 이를 제 기억에 새겨 주셨음을 보고 위로를 느꼈습니다”(11절). 성녀는 인용구들 중에서 첫 번째 인용구를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 역시 이를 체험했을 때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제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런 성인들이 그런 깊은 고독을 체험했음을 알 때 저는 크나큰 위로를 느낍니다”(10절). 본 장에서 인용된 시편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지붕 위의 외로운 새가 느끼는 고독함: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의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라틴어로 인용됨; 10절; 시편 101, 8).

- 하느님의 부재중에 제기한 걱정 가득한 물음: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11절; 시편 41, 4).
- 영의 비상을 시작하기 위해 비둘기의 날개를 갖고자 열망함: “아,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날아가 쉬련마는”(24절; 시편 55, 7).
- “누가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28절; 시편 142, 2에 대한 자유로운 번역).

본 장에 인용된 사도 바오로의 구절은 2개이다. 첫 번째 구절은 명확히 드러난다: “저는 성 바오로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천국으로부터,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승으로부터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듯이 생각합니다”(11절; 갈라 6, 14). 반면, 두 번째 구절은 사도 바오로의 구절을 단순히 암시하고만 있다. 성녀는 이를 통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사도 바오로의 열망과 교감했다(25절; 자 21, 6에서는 이 열망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약성경으로부터 끌어들이는 2개의 인용 구절도 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느님을 가리키는 ‘정의의 태양’(말라 4, 2), 황금처럼 우리를 정화하는 ‘도가니’에 대한 암시(지혜 3, 6)가 그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옹달샘 *

고통이 영원한 ‘지옥’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참으로 무한히 사랑하시므로, 설사 자살을 하는 사람도 죽는 순간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자살한 어떤 부인의 남편이 떨어지는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고해성사 대열에 있던 그 자매에게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전기 참조)

연옥만 가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보속을 다하면 천국에 갈 희망이 있습니다. 즉 연옥 영혼은 성도(聖徒)로서 우리와 한 몸이고 천국을 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느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하느님께서서는 안타까우시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벌하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마태 25, 42-46; 요한 15, 6; 2테살 1, 8-9; 묵시 14, 9-11; 묵시 19, 20; 묵시 20, 15 참조) 하느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公義)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가르멜 개혁 직전에 ‘지옥체험’을 하셨습니다.

어둡고 좁은 불가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닥은 아주 더럽고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역한 냄새와 징그럽고 작은 파충류(주; 뱀 따위)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편 아래에는 벽에다 파서 만들어 놓은 벽장처럼 패여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좁디좁은 불가마(옹

광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거기서 느낀 것과 비교할 때 상쾌한 것입니다만, 내가 말한 것은 실제로 겪은 것에 비하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그 좁은 데서 겪은 것은 애당초 어떨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영혼 안에는 달아오르는 불덩이를 느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예 어디에다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평생 지극한 고통을 겪었으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현세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도,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거기서 겪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끝도 없을 것이고, 중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서전 32, 1-2)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만선미호(萬善美好)하신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실고(失苦)이고, 성녀께서 체험하신 각고(覺苦)가 위와 같습니다.

성녀께서는 이 은혜로운 체험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代價)를 치르고서라도 지옥만은 면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대죄 하나만은 결코 짓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6)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7 궁방 제2장

영적 합일과 영적 혼인의 차이,
여기에서 나비가 죽는다

1. (1-3항) 테레사는 영적 합일과 영적 혼인이 매우 다른 효과를 낸다고 강조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한다. 영적 혼인의 대단히 큰 은혜는 이승에서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테레사는 언급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축복을 잃을 수 있다.

2. (4항) 영적 혼인의 합일이란 너무나도 완전해서 그 영혼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반면에 영적 약혼의 합일은 빨리 지나간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테레사는 비유를 사용한다. 영적 약혼은 두 개의 초가 합쳐지는 것과 같다. 불꽃은 하나가 되지만 초가 분리되면 다시 두 개가 된다. 영적 혼인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개울에 내리는 비와 같다. 그 물은 하나가 되고 분리되지 않는다.

3. (5항) 테레사는 성 바오로도 그녀가 경험했던 것-영적 혼인의 합일-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성 바오로처럼 그녀는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4. (6-8항) 테레사는 영적 혼인의 합일의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

명한다. 그녀는 이러한 합일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영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분명히 그리스도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더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한다.

5. (9-11항) 테레사는 영혼이 평화를 느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기능들과 감각들과 감정들은 언제나 똑같은 평화 속에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적 방해물들은 영혼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 장의 1번에서처럼 영적 혼인을 경험한 영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또 다시 떨어짐 없이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한다. 오히려 그 영혼은 하느님을 섬기고 당신을 거스르지 않는 데 더욱 조심하게 된다. 그녀는 중심 궁방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 보호를 받고 평화 속에 머무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설명

1. 테레사는 계속해서 제7궁방에 대한 전체 부분의 주제인 거룩함에 대하여 다룬다. 그녀는 인간적 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

그녀는 제1장에서 (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다루었다. 이제 2

장에서 데레사는 그녀가 “그리스도께서 그녀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한 그녀의 영성 생활의 이렇게 가장 높은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험의 신비는 심오하다. 그리스도인 생활이 단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본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삶, 즉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것은 공감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신비스러운 합일을 통해 일어난다.

2.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로 놀라운 것은 바오로의 자서전적 증언이 데레사에게도 자서전적인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그녀의 첫 번째 자서전적인 글부터 「영혼의 성」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라는 이러한 의미를 유지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저는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통하여 성 바오로처럼-그렇게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아! 저의 창조주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서전」 6, 9). 바오로의 말에서 데레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하여 이해한 그녀의 이러한 초기 경험과 태도는 다시 제7궁방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녀는 자서전적이고 교의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한다. 자서전적 차원에서 데레사는 그녀의 충만한 삶 속에서(62세), 그러나 이제 더 커다란 통찰력으로 성 바오로가 말한 것, 즉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녀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교의적 차원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두 생명,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의 영이 되기까지의 합일로 체계화한다.

“산다.”와 “하나의 영”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바오로적 표현은 제7궁방의 2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3. 우리는 이 장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고통들, 모욕들과 수난 등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조건들의 육체적 의미를 포함하여 복음에 설명된 당신의 인간적 삶, 행위들과 말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하게 강조된 데레사의 이 책의 다른 장(「영혼의 성」 6궁방 7장)을 상기해야만 한다. 이것은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들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보자들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들과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로 확장되는 초보자와 완덕에 이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들의 신비적 경험이 정화되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자서전」 22, 10)라고 데레사는 주장하곤 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은총의 생활이란 우리의 영만을 다루는 것처럼 말하는 신플라톤주의적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단언한다. 나아가 그녀는 “주님께서 제7궁방에 놓아 주신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이자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있고 언제나 사람의 동반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성」 6, 7, 9). 우리 시대의 동방의 철학자나 수도자들과 대화는 물론 그 시대의 신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교의적 수준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에 한

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실 데레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신인성 神人性은 은총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목상을 하셨다.

4. 신비에 대한 제한적 경험으로 믿음과 희망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살고 있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데레사는 그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목격자이며 예언자로서의 그녀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의 정점으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이 장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 7, 2, 1).

5. “내가 강생 수녀원의 원장 수녀로 봉사하던 두 번째 해, 성 마르티노 축일에, 제가 영성체를 할 때였습니다. 거룩한 성체를 나에게 영해 주고 있던 십자가의 요한 신부님이 성체를 쪼개어 다른 수녀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모욕을 주기를 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존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는 다른 때처럼 저에게 상상적 환시 속에서 매우 내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고, 당신의 오른 손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보아라. 이것이 오늘부터 네가 나의 신부라는 징표이다. 지금까지 너는 이에 합당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너의 창조주이며 임금이며 하느님의 영예로써 나의 영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신부로 그것을 지

킬 것이다. 나의 영예는 너의 것이고 너의 영예는 나의 것이다.’ 저에게 그러한 효과를 준 이 은혜는 제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낮을 잃은 채 마냥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비천함에서 들어 올려 주실 것인지, 혹은 그러한 은혜를 내리시지 않을 것인지 여쭙었습니다. 저의 본성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보고」 31).

다양한 수준의 강렬함으로 계속되었던 이러한 강력한 경험 후, 이제 5년 뒤에 데레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이 전체로서의 그녀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얼마나 잘 맞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 준 첫 번째 신비적 은총이 있었다. 삶이 데레사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그녀 영혼의 가장 내밀한 중심에 계신 당신의 현존에 대한 새롭고 전적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인식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생활이 지니는 효과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영혼은 어떤 비밀스러운 염원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해서 때때로 그 영혼은 “아, 내 생명의 생명이어! 저를 존재하게 하는 자양분이시여” 나 이러한 종류와 같은, 그것이 일으키는 사랑스러운 표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 7, 2, 6).

이제 데레사에게 그리스도는 바오로에게처럼 그녀 영혼의 생명이다. 그녀는

이러한 신비에 대한 경험이 바오로의 경험과 똑같이 일어난다고 은밀히 확신했다. 바오로의 또 다른 말씀 또한 데레사의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코린토 1서 6장 17절의 말씀이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데레사가 경험했던 것은 그녀가 주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이 될 때까지 영과 영 사이의 합일이었다. 그녀는 영혼과 영 사이의 구분에 의지했다. 가장 심오한 심리적 수준에서 보면, 영의 자리인 영혼의 중심에서 인간의 영은 하느님의 영과 합일한다.

6. 데레사는 또한 그녀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른 상징과 이미지들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가 마지막 세 궁방의 구조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혼인의 상징을 기억했다. 그 상징은 성경에 기원을 두었고, 데레사에게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합일을 잘 표현했다. 이 제7궁방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영적 혼인에 대하여 말한다. 그녀에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개인적 완전함의 윤리적인 사실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특징으로 그리스도와 인간이라는 두 사람 모두 친밀하게 함께 사는 특성을 가진다. 영혼에게 흘러넘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고, “여기에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만이라면, 더 이상 육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합일은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 영혼의 바로 그 내밀한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당신께서 들어오시는데 어떠한 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 7, 2, 3).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의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데레사가 사용한 두 개의 성경적 이미지는 불과 물이다. 영적

약혼은 두 개의 불타는 양초로부터 하나의 불꽃으로 결합되는 불과 같다. 그러나 양초는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면, 모두 물이 되고 분리될 수 없고 바다의 물과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영혼과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

7. 「자서전」에서 데레사가 그리스도의 현시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당신께서 그녀 곁에 계신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제 곁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자서전」 27, 2).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그녀 곁에 계신 당신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그녀 안, 그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계신 당신에 대한 경험이다. 그녀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때 영혼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영혼은 “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려움과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가장 강한 열망...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고 해야만 할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일상적인 고통과 혼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 7, 2, 9).

논의를 위한 질문

1. 모든 사람들이 데레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영적 혼인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가?
2. 이러한 영적 혼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3. 그것은 영적 약혼과 어떻게 다른가?
4. 이러한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가?
5. 영적 혼인의 상태에 있는 영혼은 그 구원을 확신하는가?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2)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사랑의 개념의 파괴

요한의 사랑의 여정은 사랑이 종종 오해 받는 세상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사랑은 감상적인 것으로, 자기도취로, 성적 만남의 승화로, 그리고 참된 신비적 합일의 변조로 축소된다. 영성에서조차 그것을 믿음의 원기 왕성한 여정보다는 부드러운 여정으로 본다. 사랑은 종종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자기만족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한은 “자애自愛 속에서 굳어버린 영혼은 더욱 딱딱해진다.” (『금언』 29)라고 경고한다. 우리 시대의 세상에서 소위 지도자들 중에서 사랑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훈육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정이나 가족을 사랑의 학교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꾸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동적인 어두운 밤에 하느님께서서는 이전의 사랑하는 방법을 치우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그 어떤 자신의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밤』 2,21,10). 그러나 그 밤을 통하여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스럽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시작하고 끝맺지 못한다면 믿음은 이 여정에서 불충분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도록 준비하면서 이 여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의 실패를 인식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정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처음에는 금욕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것에 투신해야만 하고 그리하여 그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짓 사랑의 장애물을 치워야만 한다.

인간 영의 흐름

우리 사회는 거의 아무것도 관상적 성찰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업화된 자기만족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성찰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삶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 직업윤리, 시간을 때울 변화된 접근법에 중요성을 둔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적 영을 믿지 못하는 듯이, 활동으로 종교생활을 채우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인 것이 된다. 활동만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수동성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모로 이러한 우리 세상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다. 종종 인간의 영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둔탁해지는 것 같다.

언제나 다른 곳에-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는 얼어붙은 영을 녹여야만 하고 녹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을 찾고 현재 이 순간의 충만함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자연, 음악, 미술과 심지어 좋은 음식과 와인에서도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정, 가족과 친지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고 열정적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키워야만 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과 들뜬 기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여가 활동에 대한 창조적 접근

법을 필요로 한다.

만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기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한 현재의 동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재정적 불안정, 직업적 불안정, 주거 유용성과 위기들, 그리고 친지들 속에서 두려움을 만난다. 우리는 노화, 의료 서비스 선택, 안전과 죽음에서 두려움을 만난다. 우리는 무정한 조직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업 관행들, 정부 정책과 교회 명령들과 같은 주변의 모든 권력들의 위협을 받는다. 전쟁과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인한 미래와 우리의 자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지, 사람보다 사물이나 조직을 우선시하는 삶에 대한 물질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이든지, 우리의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다. 수많은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사악한 만족감을 위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남용의 두려움에 우리는 짓눌린다. 우리는 죽음과 미지의 것에 흠칫 놀란다. 우리는 폭력이란 허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두려움 없이 TV를 볼 수 없고 신문을 읽을 수 없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없다. 불행히도 이렇게 만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하는데, 물론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악마는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두려움으로 영혼을 방해한다 (『밤』 2,23,4)고 요한은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한다. 두려움은 사랑을 몰아내고, 적들이 없는 곳에 적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우선사항을 세우고, 합일을 위한 열망을 고갈시킨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기 위한 최초의 평화가 필요한데, 이 세상의 압도적인 두려움

은 선한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다 줄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고통을 피하려는 소망

우리의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주변 모든 곳에서 고통을 만나는데, 그러한 고통 중에서 많은 것이 인간에 기인한다. 우리의 세상은 정치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에 직면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끝내고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나 많은 고통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된 우리의 죄악, 이기심과 무질서한 태도들의 결과이다. 우리는 고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종교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마취되게 하며,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종교-영적 수준으로 옮겨 갈 때, 우리는 고통이란 연민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만남의 일부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고통을 발견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한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위안과 영적 시현과 묵상보다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메마름과 고통을 겪으려는 마음을 더 소중히 생각하신다” (『금언』 14).

그리스도교 믿음은 우리 주변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살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 그 밤에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라는 부르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느님은 이러저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하느님과 실제의 하느님은 다르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삶에서의 고통의 신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랑에는 고통이 있다. “나중에 영혼과 합일하여 영혼을 영광스

럽게 해 주는 바로 그 사랑의 불이 이전에 영혼을 정화시킴으로써 들이닥쳤던 불이다” (『불꽃』 1,19). 고통은 종종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의 사랑을 간절히 바란다. 게다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거나 비인간적이 된다. 그러나 고통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증거라고 가르치신다.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무지와 교육의 부족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지식과 사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해야만 할 이유가 더 많이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밤을 통해 가는 여정은 사랑이 충만한 지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쇠신과 영적 조명을 추구하는 것은 굳건한 신학과 영성과 성경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굳건한 영성은 무지의 소음으로 들릴 정도이다. 어떤 그룹에서는 사소하고 계획된 자발성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한 추구를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들은 반지성주의에 빠져있다.

양질의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려면 정기적으로 자양분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더 박식하고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은 모두 능동적인 밤의 일부이다. 우리는 공부, 성찰과 공동체에서의 나눔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확실히 이것은 수동적인 밤을 통하여 고쳐지고 다듬어지겠지만, 이렇게 하느님을 알기 위한 습득

된 사랑은 새로운 차원의 확신을 위한 커다란 준비일 것이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저러한 현대적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요한의 끊임없는 도전은 강력하고도 흥미롭다. 그는 그 고난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합일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충만함으로 가도록 촉구한다.

제8장

십자가의 요한과 어두운 밤 작품을 위한 20가지 질문

1. 어두운 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하느님께서 영혼을 어두운 밤에 두지 않으신다면, 그는 모든 불완전함을 정화할 수도 없고 합일을 준비할 수도 없다(『밤』 1,3,3)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모든 사람이 영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밤』 1,14,5)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주관적 뜻에 달려 있다. 사람들을 어두운 밤에 두어 합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바람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이 응답하지 못한다고 요한은 말한다. 때때로 그들은 그 밤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을 도와줄 적절한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능과 은총을 주시니, 그들이 힘을 내려고만 한다면 이렇게 높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산길』 서문,3). 때때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도움이 나 협조 없이도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면 발전이 더디다. 어떤 이들은 너무 멀리 가서 하느님의 노력을 방해한다. 정화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필요한 것이라고 요한은 주장한다. 어두운 밤에 들어가

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발전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사랑의 합일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점진적인 정화의 긴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산길』 1,4,3 참조).

우리는 요한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에게 유일한 선택이란 전부(todo)이거나 무(無)(nada)였다. 그의 목표는 매우 분명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사랑으로 하느님과 합일이었다. 요한은 차선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은 초심자로부터 나아간 사람으로의 전환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많은 삽입어구들로 그가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초심자들의 삶의 발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뿐이다. 그는 초심자들의 단계가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하다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많은 경험들 속에서 수동적인 밤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던 수도원 주변 지역의 곤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적 사목을 했으며, 영적 지도를 했다. 그는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경멸하지 않았으며, 삶의 어떤 지점에 있든지 그에 맞는 자양분을 주었다. 그의 사목 활동은 영의 어두운 밤이란 하느님께 가는 개인들의 여정에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두운 밤과 함께 오는 정화는 사랑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이런저런 길에서 필수적이다. 하느님께서 하느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갈망을 가지도록, 그리고 하느님과 합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 각자를 만드셨다. 이러한 갈망들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미완성일 것이다. 이러한 정화는 어두운 밤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필요로 한다.

2. 요한은 조직화된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날 조직화된 종교는 전 세계에서 추문들이 일어남에 따라 신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요한이 다루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당국자들과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거듭된 비난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시대의 합법적 교회 구조 속에서 개혁에 투신했다. 그의 작품들은 몇 번이고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러한 당국의 처사를 받아들였다(『산길』 서문,2. 『노래』 서문,4). 게다가 요한은 자신의 영적 체계를 교회의 성사 경륜(經綸)에 완전히 연결시켰다(『산길』 2,22,7. 11). 그는 교회를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평범한 통로로 보았고, 기적처럼 특이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다(『산길』 3,31,9). 그렇게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외적인 신비적 은총을 바라지 않도록 지도했고 하느님의 기본적 교회 정신을 강조했다(『산길』 2,24,3). 하느님께서 그 밤에 특별한 지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요한은 “내가 나의 아들인 내 ‘말씀’ 으로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며 그래서 나는 다른 할 말이 없다.”(『산길』 2,22,5)라고 말한다. 사실 신비적 합일의 더 높은 수준에서조차 요한은 다시 육화에 대하여 말한다.

요한은 교회를 하느님의 계시의 통로이며 진정한 가르침과 해석의 통로이며(『산길』 2,27,4; 29,12), 수도적 수련의 통로(『산길』 2,22,7; 3,35,3; 42,6)로 이해했다. 그의 시각은 많은 현대인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요한은 우리처럼 공동체, 카리스마, 전례와 상호 책임에 대한 현대적 교회론을 알지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나는 그대의 것 Vuestra soy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그대 위해 삼겨난 몸 난 그대의 것
나로 하여금 무얼 하라시나이까
2. 엄위(嚴威)하신 지존(至尊)
영원하신 슬기시여
내 영혼 어여뻐 보옵시는
님이여 지존이여 지선(至善)이여
굽어보소서 더럽고 더러운 이 몸
오늘 이렇듯 그대에게 사랑을 노래하노니
<나로 하여금 무얼 하라시나이까>
3. 날 지어주셨기에 그대의 것
날 속량(贖良)해 주셨기에 그대의 것
날 참아 주셨기에 그대의 것
날 불러 주셨기에 그대의 것
날 기다려 주셨기에 그대의 것
나 절개(節概)를 꺾지 않았기에 그대의 것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4. 좋으신 님이여 미천하기 짝 없는
이 피조물에게 무엇을 하라시나이까
죄 많은 이 종에게 하라고
말기시는 일이 무엇이오니까
봄소서 내 사랑이여 여기 이 몸을
봄소서 내 님이여 여기 있사오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5. 이 내 마음 보고 계시오니
내 몸 내 목숨 내 영혼을
속마음 깊은 정(情)까지
그대 손에 놓아 드리웁니다.
좋으신 님 내 구원이여
그대 것으로 날 바쳤으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6. 죽여 주소서 살려 주소서
성케 하소서 앓게 하소서
이름을 주시든 깎아 주시든
싸움 아니면 평화를 주소서
힘을 주시든 약함을 주시든
무엇에든 예 아될 뿐이오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7. 가멸함이나 가난이나
위로거나 아니거나
눈물 아니면 웃음 주소서
지옥 아니면 천당을 주소서
느긋한 삶 구름 없는 햇살...
그대에게 통째로 바친 몸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8. 기도를 주시려면 마음대로
냉담도 또한 잘사옵니다
싱싱한 열성(熱誠)을 마다리까
메마름이란들 싫으리까
엄위하신 지존이여
그래도 평화만 있으오리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9. 슬기를 내게 주사이다
사랑 탓인 무지(無知)를 주사이다
풍년을 내게 주사이다
주리는 흉년을 주사이다
흐린들 어떠리까 개인들 어떠리까
이리로 저리로 구울리셔도 잘사오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10. 노닐라는 뜻이시면
사랑으로 노니리이다
일 하라는 명이시면
일 하다가 죽으리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고
님하 말씀만 한 마디 주소서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11. 타볼 아니면 갈바리아
사막 아니면 기름진 땅
고난 속에 <욥>도 좋고
품안에 쉬는 <요안>도 좋고
주렁주렁 포도밭이든
알뜰이든 맘대로 하소서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12. 사슬에 묶인 <요셉>이기로
이집트의 재상이기로
욕을 당하던 <다윗> 되기로
나랏님 된 <다윗>이기로
물에 빠진 <요나스> 되든
물에서 나온 <요나스>이든
나로서 무얼 하라시나이까
13. 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열음 열거나 아니 열거나
율법이 내 상처 열어 뵈거나
복음의 기쁨에 즐겁거나
괴로워도 반가워도
그대를 내 안에 숨 쉴 뿐이니
나로써 무얼 하라시나이까
14. 그대 위해 삼겨난 몸 난 그대의 것
나로 하여금 무얼 하라시나이까

해설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지은 시(詩)들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시에서는, 하느님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오는 성녀의 완전한 의탁과 신뢰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원문 그대로 하면 <나는 그대들의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2인칭 복수 여성형 소유격을 썼다는 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 또는 하느님이기에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끼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나는 그대의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쓴다면 <Soy tuya>가 되고, 만일 작가가 남성이라면 <Soy tuyo>가 될 것이고, 성녀와 같은 의도로 쓴다면 이 시의 제목도 <Vuestro soy>가 될 것이다.

시의 1절 서두에서 성녀는 자신은 하느님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몸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는데, 자신은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기에 하느님의 소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시나이까>라는 말을 행마다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자신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치 충실한 종처럼 대령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이 시의 맨 첫 행과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나오는 <삼겨난>이라는 말은 <생겨난>의 방언이거나 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4절에서 두 번 나오는 <몹소서>라는 말도 <보소서>의 존댓말인 <보옵소서>의 준말이거나 작가가 창작한 시어(詩語)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있는 <구울리셔도>는 <굴리셔도>의 시적 표현이고, 10절에서 <노닐라는 뜻이시면/사랑으로 노닐리이다>라는 말은 <놀아라는 뜻이시면 사랑으로 놀

겠습니다>라는 말로 <노닐다>는 <놀다>에서 파생된 고어(古語)로서 <한가하게 이리저리 놀며 다니다>라는 말이다.

1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자신이 인생행로를 가는 동안 겪게 될지도 모르는 영광과 치욕, 희로애락과 길흉화복을, 상징이나 비유로 표현한 구절들에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탁>의 정신이 문학적 대위법까지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드러난다.

13절에 <열음 열거나 아니 열거나>라는 말은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뜻으로 <여름>은 <열매>의 고어로 알아들으면 되고, 이 시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성녀가 쓴 다른 어느 시보다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소 *



가르멜로 74-56길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구나!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며칠 전 아침 일찍 수사님들과 함께 성무일도를 바치고 나서, 신자들과 함께 하는 수도원 미사를 드리기 위해 대성당으로 이동하던 중, 문득 강의 때 사용하는 칠판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春來不似春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구나).’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시의적절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무엇보다 요즈음 계절은 봄인데 봄 날씨답지 않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쌀쌀하기 때문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가 싶었다.

과연 누가 글을 적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식사 중에 확인해보았다. 짐작대로 한자에 조예가 깊은 칠십 초반의 수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였다. 수사님께서서는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이라는 글의 유래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단순히 요즈음 봄 날씨를 잘 표현한 글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중국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의 한 구절이란다. 간단히 말해 <소군원>이라는 시는 한(漢) 나라 황제의 후궁으로서 공주 대신에 흉노족의 황제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던 왕소군(王昭君)이라는 여인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 낯선 외국으로 가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여인의 심정이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구나’ 라는 시구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어느덧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라는 불안함 가운데 주님 부활 대축일 미

사를 신자들과 함께 나뵈 성대하게(?) 봉헌한지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사순시기 동안에 고대했던 부활을 맞이했는데… 정작 그렇게 맞이한 부활을 정말 ‘부활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움아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하는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싶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부활 이전의 삶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저 마음 쓸쓸할 뿐이다. ‘부활’ 이라는 봄이 찾아왔음에도 부활답지 않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생명력이 서서히 자연의 온갖 초목을 피어나게 하듯,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주님 부활의 은총이 조금씩이라도 나를 새로움이라는 변화의 여정으로 인도해주시기를 마음 모아 간절히 희망해본다.



성소문의:010 2140 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선교 *

오쿠무라 신부의 영적 여정

권상균(아기예수의 아우구스티노)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어느새 대만 생활도 여섯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원 공동체 생활도 2년째, 아직은 비틀비틀 걸음마 하는 갓난아기의 모습이다. 비록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아직까지 현재진행 중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인간들의 삶에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선교사로서 30여 년을 살아오신 신부님과 함께 신자 집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늘 지나가는 길모퉁이의 도교 사원에서 묻어나는 향의 냄새가 구수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문득 ‘향냄새가 구수하다.’ 라는 신부님의 말 한마디에 선교사로의 긴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마침 잘 발휘된 술처럼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때로는 선교를 하기 위해 대만에 오시는 선교사들 중에는 대만 특유의 민간신앙(대만은 불교, 도교, 원주민 신앙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톨릭은 인구의 1%가 되지 않는다. 1%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는 반 정도라고 한다.)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하는 선교사들도 있다. 언뜻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톨릭이라는 옷을 그들에게 입히려고 하는 성급한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덜 익은 술처럼 느끼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삶으로 선교를 해

야 하는가? 그 색깔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와 문화,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배제한 채 무조건 가톨릭이라는 옷을 입히는 성급함보다 오래 발효된 술처럼 조금씩 그들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삶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가르멜 수도회의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님의 삶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님이 가르멜 수도자가 되기까지의 영적 여정 즉,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과정은 많은 것을 선교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신부님의 영적 여정을 잘 알고 있는 나고야 대학의 교수의 말을 빌려서 오쿠무라 신부의 영적 여정을 짧게나마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쿠무라 신부는 오랜 세월을 걸쳐 종교 간 대화에 주력하였으며, 로마 바티칸에서 종교 간의 평의회와 고문으로 활동하셨던 가르멜 수도회의 신부이며 영성가이다. 오쿠무라 신부는 진리의 탐구에 있어서 먼저 동양의 선(禪)을 통해 종교적 영성에 눈을 떴고, 이윽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거쳐 관상 수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일찍이 도겐 선사나 신란의 가르침에 깊이 끌리면서도 인연에 의해 가톨릭교회의 세례를 받은 오쿠무라 신부의 기도에서 찾아낸 선적 영성은 선(禪)과 그리스도교가 결코 대립하지 않으며, 신부 자신이 오

히려 공통의 정신적 샘물에서 길어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오쿠무라 신부에게 있어서 선은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교적 구도의 뿌리조차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쿠무라 신부는 제2차 대전이라는 고난의 시대를 병사로 살아갔었다. 도쿄제국대학 시절 학도출진(2차 대전 말기인 1943년 12월부터 병력 보충을 위해 그때까지 학생에게 주어졌던 징집 유예 특권이 폐지되면서 군대에 입대)에 의해 소집되어 육군의 혹독한 훈련에 투신하였다. 오쿠무라 신부의 일상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선(禪)의 영성이었다. 오쿠무라 신부는 입영할 때, ‘짜라투스투우라’와 함께 ‘정법안장’ (선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도겐 선사가 집필한 불교사상서)을 지참하였다고 한다. 이 책들은 검열에서 발각되었고, 육질과 그리고 혹독한 구타를 당한 후에도 불교의 가르침과 선(禪)적인 마음을 오쿠무라 신부로부터 떼어 보낼 수 없었다고 한다. 오쿠무라 신부는 흔히 ‘세 쌍둥이의 영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도겐 선사(道元禪師)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나카가와 송연(中川宋淵)스님에 의한 임제선(臨濟禪) 수행으로 자각된 정신을 가리킨 것이다. 오쿠무라 신부의 영성은 선을 통해 동양적 지반에서 길러져 지금도 여전히 내면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오쿠무라 신부에게는 불교나 선은 단순한 타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영성은 오쿠무라 신부의 종교적 실존에 근거하고 있다. 오쿠무라 신부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개별 종교를 초월하는 차원을 지향하고 동시에 그 초월적 차원을 토양으로 한 개별 종교의 다양한 문화의 개화를 중시한 것은 과연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쿠무라 신부는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선(禪)의 수학의 길을 가려고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 시도는 도쿄대 법대 복학을 계기로 섭리적으로 중단되었다. 그것은 바로처럼 그리스도교의 기만성을 철저히 파헤치려고 애쓴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정적인 만남을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열렬한 영적 대결의 은총이었다고 해도 좋다. GHQ(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 전쟁 후 바로 종교 시책의 일환으로 그리스도교 선교를 추진했고, 오쿠무라 신부는 의도하지 않은 채 신언회(神言會)나 벨펠트 신부의 지도 아래 성경연구회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오쿠무라 신부가 그곳에서 배운 성경과 그리스도교 내용은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참으로 황당한 꾸며낸 이야기로 보였다. 신부는 그것을 치졸하기 짝이 없는 종교적 대화로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라는 한 남자를 기만적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로 추앙하여 2천 년 가까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세계를 혼란시켰던 것이다. 그 죄는 용서하기 어렵고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예수를 이 역사적 날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신학과 성서학의 연구에 몰두하여 약 3년에 걸쳐 그리스도교를 규탄하는 방대한 논문을 썼다. 오쿠무라 신부는 훗날 자신의 오류에 의한 반 그리스도론이었다고 솔회하였지만,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려고 목숨을 건 연구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영적 차원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염원하던 역작을 완성하여 성취감을 얻었지만, 일종의 허탈 상태에 빠져 있던 오쿠무라 신부를 덜친 환상이었다.

“오후 2시경 이노카시라(井の頭) 공원의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의 일이다. 눈앞에 갑자기 흰 벽의 성이 신기루처럼 떠오르자, 그것은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발밑의 눈을 보니 속이 새하얀 흑표지의 성경책과 검게 눌린 나무 조각의 그리스도상이 나뒹굴었다.”

오쿠무라 신부에 따르면 이 성경의 환장에는 그리스도의 기적과 교훈은 전면적 부정의 상징이었고, 검게 탄 그리스도의 시체는 기적과 교훈이 분리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그간의 번뜩임인지, 그 후의 반성적 사색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심층 심리적인 체험은 오쿠무라 신부에게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 부여되었다. 지성을 구사하며 반박해 보았지만 오히려 환시를 통해 다른 차원에 도달했고, 이제는 기적 없는 그리스도교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기적 조차도 믿는다는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흰 벽의 성의 붕괴는 신부 자신의 지적인 붕괴를 상징했으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기초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오쿠무라 신부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체험한 후에도 곧 그리스도교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인하기 위해 선의 스승 나카가와 송연(中川宋淵) 스님이 계시는 미시마(三島)의 류우타이지(龍滯寺)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스님은 군대생활에서의 고생과 그간의 영혼의 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마지막으로 환시의 신비로운 체험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교를 몸으로 알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오쿠무라 신부를 크게 꾸짖는 것을 의미했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유신론을 고집하는 그리스도교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소산이므로 앞으로는 깨어나 오로지 무(無)를 행하는 선 수행에만 힘쓰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나카가와 스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오쿠무라 신부의 그리스도교와의 깊은 인연과 믿음의 결정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선은 선종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가 베풀어주는 종교의 인연을 옮기지 않고 소중히 살도록 지도한다.' 거기에 선의 선다운 면목이 있다. 유일 절대 진리를 표방하는 그리스도교는 과연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웃으면서 손 흔들고 싶다.*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

* 순례기

18일간의 숨바꼭질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풍요로운 유산 안에서 현대를 살다 가신 세 분 성녀,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영성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던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18박 19일의 순례 기록입니다.

지도 사제인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대전, 고성의 재속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떠나기 1년 전인 2017년 4월 29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만 1년 동안 다양한 서적과 동영상 등을 이용, 순례에 앞서 세 분 성녀에 대한 연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른바 ‘공부하며 순례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해서 ‘공순모 1기’가 되었다.

세 분 성녀에 관한 여러 권의 책으로 연구 나눔을 하면서 또한, 회원들은 순례지를 직접 결정하여 그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였다.

순례를 떠나는 날, 중간에 사정이 생겨 순례를 함께할 수 없게 된 회원들 자리에서 서울 재속회원 4분이 마지막으로 합류하여 미지의 세계로의 첫 발을 던지게 되었다.

“한 분의 성인을 만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 걸었던 한 사람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며 동시에 그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섭리를 알아 가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를 거울삼아 하느님을 향한 각자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 온 과거와 지금 자리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할 여정을 점검하는 가운데 성성(聖性)을 향한 원의를 새롭게 곧추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성녀 에디

트 슈타인 영성 입문’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지음)

1. 순례를 시작하면서 - 세 성자 이야기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로 우리들 이야기를 열고 싶다. 길고도 짧았던 19일간의 순례 일정. 왜 이 이야기가 떠올랐을까? 세 성녀에 대한 순례 기록을 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이야기는 기억 저편에서 나에게 게로 왔다.

한 작은 나라의 작은 섬에는, 오래 전부터, 성덕이 뛰어난 세 사람의 성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침 배로 이웃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 그 나라의 어느 주교님은 가는 길에 잠시 그 곳에 들러 그 뛰어난 성자들을 만나보고 가르침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길을 나선 주교님이 뱃머리를 돌려 많은 섬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깊숙이 들어앉은 그 섬에 들러, 오직 세 노인만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며칠을 묵었다. 노인들은 주교님이 이런 깊은 섬까지 일부러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대접했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왜소한 체구,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들의 발노동... 그것이 주교님이 며칠을 관찰한 그들 모습의 전부였다. 게다가 며칠을 겪고 보니 그들은 제대로 외우고 있는 기도문 하나가 없지 않은가! 주교님은 순박하기만한 이들이 왜 유명한지, 그것도 어째서 성덕이 높은 것으로 소문이 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일부러

찾아온 곳이었기에, 주교님은 며칠을 더 묵기로 하고 그 동안 세 명의 노인에게 제대로 된 기도문이나 외울 수 있게 해 주고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푸른 망망대해를 앞둔 서늘한 나무 그늘에 앉아, 주교님은 세 노인들에게 주모경과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면 잊어버리고 또 가르쳐 주면 잊어버리는 노인들을 인내로이 견디면서 한 나절의 시간을 보낸 며칠 후 마침내 주교님은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르신들, 제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길을 떠나고 없더라도 이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가르쳐드린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노인들은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떠나는 주교님께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를 태운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떠나오는 배 안에서 주교님은 생각했다 - 착하기는 한없이 착한 노인들이지만 그럴다고 만인이 우러러볼 정도로 성덕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냥 시골의 순박한 노인들이지. 다행히 내가 기도문 몇 개를 가르쳐 주었으니 그 기도문으로 틈틈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되겠지. 주교는 이제 배에서 완전히 멀어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섬 쪽을 바라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푸르고 깊은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순박함으로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함으로도 기도가 되니 세 노인들의 성덕은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찌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주교님은 배가 지나온 저 멀리 수평선 끝에 생긴 아주 작은 점을 보게 되었다. 주교님이 저 작은 점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여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것

이 점점 진해지면서 커지는 것이었다. 점은 어느 순간 세 개로 보이더니 마침내 형체가 뚜렷해졌다. 세 노인들이 서로 손을 잡은 채 전력질주해서 바다 위를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주교님은 왜소한, 햇볕에 그을린 까만 피부의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치듯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주교님! 아직 멀리 안 가셔서 다행이구만요. 주교님이 떠나시고 나서 보시다시피 저희 이 세 노인네가 기도문을 배운 대로 맞춰 외우려는데 세 사람 모두 다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없어 주교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달려 왔구만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도문을 외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잘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구만요.”

가쁜 숨을 내쉬는 세 노인이 주교님 얼굴 가까이 그들의 얼굴을 들이대며 그렇게 사정하는 것이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나타난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주교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르신들, 당신들께서는 더 이상 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교님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 노인을 바라보았다. 주교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노인들은 안도의 낫빛을 감추지도 않고 주교님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몇 차례 바라보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주교님께 다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주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교님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뛰어 되돌아가는 세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노인들은 오던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하느님은 단순하시다

어느 무명인이 정의한 이 말이 얼마나

하느님의 속성에 어울리는지,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내 안에 하느님은 항상 단순하신 분이셨다.

이 이야기를 어느 나라 민화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세 노인을 통해 전해지는 '거대한 힘인 단순함'에 가슴이 뛰었다. 나중에는 그 세 노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징으로도 느껴졌다.

세 성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이 1년여 동안 세 성녀에 대한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내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성녀들 각 개인의 인품이었고 그 인품의 한없이 투명한 단순함이었다.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세 성녀는 우리들 안의 깊숙한 작은 섬에서 천상의 향기로 발을 일구고 기도의 열매를 해풍에 말리고 있을 세 성자. 우리는 숨겨진 그 깊은 바다 사이 어느 언저리 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성녀를 찾아 길을 나선다.

(다음 호에 계속)

* 회원의 글 *

하소서

변경란(예수성심의 도로테아)

서울 복자 요한 소렛 공동체

제 눈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온 마음으로
당신을 그리게 하소서

제 귀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해도
저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당신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저로 하여금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홀로 외로움에 울고 있을 때라도
당신의 온유로
마음만은 풍요롭게 채워주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슬픔으로 가득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찬미의 노래를 읊조리게 하소서



* 회원의 글 *



버려지고 찢어진 옷자락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언제부터인가 길을 나서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부쩍 늘었다. 어느 이른 아침, 골목 중간쯤 언뜻 스치는 정경에 가던 길을 멈췄다. 건너편 길가 잔디밭에 예수 성심상이 놓여있었다. 누군가 이사를 가며 내놓았을까, 가까이 다가가니 예수님 옷자락이 깨져있었다. 출근 시간대의 트래픽이 마음 쓰였지만, 가스렌지나 문단속을 확인하러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차를 돌렸다. 꽃밭 한가운데 모셔 놓고 서둘러 일과를 마친 후 설렘으로 귀가하던 날이었다.

가톨릭 전례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된 전문점에 자주 들르던 재속회 초창기 시절, 마땅한 성 요셉상을 살펴보던 중 구석진 곳에 먼지투성이의 예수님을 만났다. 어린 양을 쓰다듬으며 앉아 계신 주님의 금이 간 지팡이와 손가락, 버려진 그분을 성 요셉 대신 모셔왔다. 맑은 물로 씻겨 드리며 마주한 주님의 눈은 어찌 그리 선하신지 담벼락 한편 붉은 벽돌로 단을 쌓아놓은 곳에 모셨다. 그날부터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착한 목자이다. 키가 큰 성심상을 아치 아래 모시려 가볍고 아담한 주님을 지붕 안쪽으로 모셨다. 혼자 옮기기엔 버거운 무게에 눌러 잡고 있던 예수님 손목이 푹 부러졌다. 순식간

에 일어난 일이었다. 못 박히신 손을 부러뜨리다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그 육중한 무게에 비해 손은 가볍디가벼운 재질로 된 허당이었다. 조심스럽게 접촉제로 붙이고 간신히 옮겨 모셨다. 깨어진 옷자락을 금빛 풀이 섞인 동양화 물감으로 여러 번 정성스럽게 칠을 하니 그나마 송구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절로 보이는 창 너머 우리 주님의 성심을 마주한다. 뜰에 나가 찬공기에 정신을 차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주님의 성심 안에 사제들의 피난처를 마련하시어 아무도 감히 그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사제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가정마다 마음마다 평화를 주시라고 봉헌 드리며, 학대받는 어린이와 특별히 위험에 처한 갓난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청한다. 요즘은 친자식조차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정한 사연이 자주 들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아기 벌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박주가리가 녀린 줄기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쉰다. 습격을 당해 간신히 도망쳐 왔을까, 하늘을 향해 긴 부리를 솔가지처럼 벌리고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 할딱인다. 조마조

마 한참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진정이 되었는지 입을 다물고 이쪽저쪽 고갯짓을 한다. 초록빛 깃털이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아기 새는 날마다 놀러 온다. 가까이 다가가 동영상을 찍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만한 청매 가지에 앉아 한껏 재롱을 떨기도 한다. 가지치기를 하며 그 작은 가지는 벌써 뭍으로 남겨 두었다.

아기 새의 둥지는 어디에 있을까? 비가 오는 날엔 새들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궁금하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가 안 보여도 슬며시 걱정이 되는데,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던 의대생의 실종사건, 출연 주검으로 돌아온 젊은이를 품은 한강수는 마치 그날 처럼 말이 없다. * '오늘은 깊은 침묵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애통을 성모님 먼저 겪으셨던 참척지통(慘慼之痛)에 의지하여 하늘의 위로를 간구한다.

십여 년 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몇 밤을 지새우던 겨울이 다가온다. 왠지 교우일 것 같은 알 수 없는 직감은 흐릿하게 보이는 위패의 검은 십자가 표시가 찌르르 가슴을 찌른다. 그의 본명을 알기 위해 굿 뉴스, 잠원동 본당, 인터넷 검색을 여기저기 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다. 발인 소식에서야 첫눈에 들어온 '보니파시오', 그 이름을 마음에 담아 우리 주님의 성심에 안겨 드린다. 깨어지고 찢어진 주님의 옷자락에 감싸 고이고이 안아주시라고. 차가운 물속에 버려졌던 생명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본디 태어났던 부모님 품에 안겨 주셨으니 천상의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기를 빌고 빈다.

예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처럼 기력을 다해 죽을힘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린 적이 있었을까?

아니 막무가내 주님의 옷자락을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찢어지고 부러지고 깨진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다. 당신의 치맛자락으로 떨어지고 버려진 모든 것을 받아 감싸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금요일, 커다란 쓰레기통은 벌써 게이트 밖에 내어놓은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다. 이사 온 이웃이 있어 쓰레기가 넘쳐날 지경이다.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유리 접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이 쓰레기 더미 맨 위에 버려져 있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화기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창피는 신작로에 내려놓고 버려진 물건을 선물로 주워 왔다. 하트 모양의 유리그릇은 꽃받침으로 유리관은 물을 담아 꽃을 고정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성심성월 제대에 사랑을 모아 봉헌 드렸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겪은 모욕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를 위해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다. 너를 위해 창에 찢려 헤쳐진 심장에서 솟구치는 자비의 생명수를 마셔라."

** - 기쁠 때만이 아니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하느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 성토요일에 관한 옛 강론에서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말씀 중에

* 회원의 글 *

오래된 나의 정원은 무엇으로 꾸며야 할까요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며칠 전 배낭을 메고 마을버스에서 내렸다. 등 뒤에서 “할머니이…” 하고 부르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니 나뿐이었다.

‘그래,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며 바라보니 한 40세쯤의 아줌마가 까만 봉투를 흔들며 나를 향해 뛰어 오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무언가를 흘리고 내린 모양이었다.

‘정말로 고마워요.’ 하며 맞받아 들고 보니 딱딱딱한 촉감이 느껴진다.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무의식 간에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기만 했다.

‘그래, 요건 내가 버스 타기 전에 산 김이 맛나게 오르는 옥수수였지. 애들 아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니 하나 사자. 그런데 배낭은 이미 미카엘라의 시골 고구마로 무거우니 그냥 들고 가야지.’ 하고 버스에 올라서 좌석에 앉았다. 내려놓은 배낭 옆 자리에 놓았다가 배낭만 메고 내렸던 그 옥수수라고 인식이 된 것은 꽤나 지난 잠깐 뒤였다.

지난여름 월 모임에 다녀 올 때도 그 모양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온 그 때도 그랬다. 너무도 환하게 밝은 빛 때문이었을까.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 어렸을 적에 깜박 낮잠을 자다 깨면 학교에 늦었다고 깜짝 놀라던 기억은 나만 있는 것일까. 몇 초 동안이었지만 불안하다기보다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다. ‘아하… 내가 요즘 뇌기능 개선 촉진제를 한참 안 먹었구나…’ 요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다.

그날은 모임 끝에 집으로 가는 같은 방향 자매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탔다.

2명이 중간에서 환승하겠다는 ‘나도 함께 바꿔 탈까?’ 하니 한 자매가 “형님 안 돼요. 환승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소피아 형님 내리실 때까지 같이 가주세요.” 그들 중 한 자매가 단호하게 권하는 이 말에 나는 한참을 멎었다. 같은 역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리실 때까지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배려. 나에게 버스에서 중간에 뛰어내려서 작은 꾸러미를 전해주던 이름 모를 여인의 선행. 흐르는 물도 떠서 주면 덕이 된다는 것은 속담이지만 이렇게 생활 속의 사랑과 지혜는 코로나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 우리는 엘리야 예언자의 자손이며 우리 사모는 데레사 성녀이시지. 요즘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는 수련기 2년의 양성교재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몸으로 깨닫게 된다. 별것도 아닌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어우러져서 울림이 있는 삶이 되는구나.’ 가리어진 그 말과 뜻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잇음과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오래된 나… 철들자 망령이라는 옛 어른님의 말씀에 또 철없는 나는 서글퍼진다. 물속에서 함께 걷는 젊은 수영 엄마는 매번 ‘소녀 같은 언니’ 라는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닌지. 흘러드는 말도 주워 담는 열정으로 잠들고자 하는 영을 깨워 본다.

나는 본당에서 독서봉사를 하고 있는데 10번은 넘게 준비하고 제대에 오른다. 그날의 말씀은 요한묵시록2, 2-3으로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은 연습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그날 오후의 구역모임에서 읽을 때에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말씀으로 봉독할 때에 그 순간에 너무 벅차오르며 목이 메어왔다. 주님께서 나의 노고와 인내와 아픔을 알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동적이며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신가. 바다의 모래알 수도 내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시다고 배워왔지만 나름 고달프고 힘겨웠던 나의 그 깊고 높고 거칠었던 세월을 내가 찾아 헤매는 내 님께서 알고 계시다니... 맥이 빠져서 한참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마스크로 가린 내 목소리의 떨림과 눈시울이 붉어짐을 아마도 뒷자리에 앉아계시던 신부님은 눈치를 채셨으리라. 누구나가 각각의 나름으로 질곡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설움을 주님께서 이따금씩 주시는 따사로운 기운으로 한 자락씩 덮고 헤쳐가는 우리 이승의 피조물인 것을.

이 경험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관상기도에 내 나름으로 숙고해 본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써도 그분께 다가가 안긴다는 일은 어렵없는 법이다. 내가 전전날부터 10여 차례를 연습할 때에도 느낌이 없었던 감동과 울림은 한 순간에 그분께서 주시고자 할 때에야 주시는 것. 내가 아무리 펌프질을 하더라도 한 종지의 흙탕물이지만 한바탕 비를 쏟아주시면 온통 흠뻑 젖어드는 고프고 마른 마음에 은총과 축복인 것을. 그것도 하고 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아주 죄끔씩 주신다.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아주 기꺼이 내게 눈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관상이 아닐까!!!!

우리 가르멜인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매일 미사 참례하는 것으로 현관을 나선다. 가서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앞 뒤 옆 옆에는 익숙하고 또 안 보이시면 궁금하고 걱정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며칠 전에 내 바로 뒷좌석이 지정석이셨던 어르신께서 귀천하셨다며 내일 장례미사에서 말씀봉사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연세 보다는 정정해 보이셨는데...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며칠씩 안보일 때에는 기도와 배려로 염려해 주는 이웃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을 그렇게도 노래하셨나보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의 시대에서 내 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남은 여백을 꾸미는 것을 어여쁘게 보아주실지 내 맘 깊은 가르멜 정원에서 그려보리라.*



* 공동체 이야기 *

함께 감사다 !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

안녕하십니까?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입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께 안부 인사 올립니다. 성모 성월이며 부활 주간이고 온 자연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 초에 이 글을 쓰고 있지만, 회원님들께서는 아마도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6월에 저희 이야기를 접하리라 생각됩니다.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 이순이 루갈다와 유종철 요한, 호남의 첫 사도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등 가족 7분의 유해가 묻힌 치명자산 성지를 비롯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이곳 전주에 지금부터 23년 전 강유수 마리오한 신부님의 권유로 전주 가르멜 재속회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때마침 하느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과 완덕을 갈망하는 신자 10여명이 모여 그중 한 자매의 사진관에서 1998년 첫 예비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주 재속회의 이름은 순교자의 고장에 걸맞게 “순교자의 모후”로 정하였고, 그 당시 지부장님이 김영자 엘리사벳 자매님을 초대 회장으로 임명하여 숲정이 성지터에 위치하고 있는 윤호관(신학원)에서 1998년 4월 18일 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격스러운 첫 월피정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수련장, 참사들을 선임하고 임원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합실이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차고 화장실은 외부에 있어 겨울에 얼어붙어 이용을 못하는 등 장시간 월피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월피정을 하다가 1999년 1월 18일에 월피정 장소를 용머리성당으로 옮기고 그해 1999년 10월 24일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

주례로 장석훈 베르나르도 지부장님, 가르멜의 신부님과 수사님, 본당신부님과 가르멜 단위 재속회 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감격스러운 창립미사를 했습니다. 이 축하식 때 용머리 성당의 도움으로 우리 재속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이 맛있었는지 가르멜 광주수도원 축성식 축하연에 음식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구장님의 뜻을 받들어 한 아름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과 그릇까지 트럭에 싣고 회원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축성식에 참석하고 축하연을 빛내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용머리성당에 부임하신 주임신부님들과 신자들의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동지를 틀었지만, 창립 초창기여서 미흡한 조직 정립과 회원 모집, 가르멜 영성 확립 등의 과제를 서서히 수행해 갔습니다. 회원들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이 구역장, 참사, 양성책임자 등 일인 3역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 공동체에서는 큰집에서 분가한 작은집을 돌보듯 많은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시어 성무일도 하는 방법, 재속회원의 의무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관구 참사교육에 참석 할 때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많은 공동체 참사들이 모두 다 갈색 한복에 스카폴라를 두르고 경건하고 근엄하게 앉아 강의실을 가득채운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단순서약기에 있는 회원이 한 명도 없어서 스카폴라도 없이 개인 복장을 하고 참석하였는데 처음 대하는 다른 참사들의 모습에 위압감도 느끼고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전

주 공동체가 막내 팀이라는 것을 아시고 각 공동체 참사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고 따뜻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속 가르멜 공동체는 창립자 사모 데레사의 겸손, 이탈,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회헌과 회칙에 따라 살고자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협조신부님께서 가르멜 정체성 확립과 목상기도 방법을 많이 강조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피정, 연피정, 양성, 구역모임 등을 통해 가르멜 회칙을 준수하면서 회원들은 가르멜 영성을 키워가는 한편 회원 모집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001년 10월 28일에는 7명이 단순서약식을 하게 되었고 2004년 10월 18일에는 나바위 성당에서 첫 숙박 연피정을 하면서 6명의 종신서약자를 처음으로 배출하게 되었는데 그 창립회원들이 5년 후에는 영광스러운 은경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재속회 소식지 「장미꽃비」를 매월 발행하였고 선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독신이시고 보호자가 없으신 고 선금자 데레사님이 2년여에 걸쳐 투병하실 때 각 구역에서 윤번으로 정성껏 보호자로서 간병하였는데 다른 보호자가족 및 병원관계자분들이 가르멜 회원들의 애덕 실천을 보고 감탄했으며, 이범규 세례자 요한 협조신부님께서는 멀리 휴가 중인데도 고인을 위해 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그 후 이창귀 안나자매님, 시한부 암과 투병하면서 종신서약을 앞당겨 받은 김경숙 글라라자매님과 김재은 헬레나자매님이 아쉽게도 우리 곁을 떠나 선종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3일간의 연피정을 처음에는 용머리 성당에서 집에서 다니면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장소에서 하느님을 만나 흠뻑 잠기고 싶은 열망으로 연피정은 조금 멀더라도 전주를 벗어난 피정의 집을 택하여 대침묵 피정으로 1인 1실, 2박 3일

로 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마침내 2004년도에 나바위 성지 피정의 집에서 연피정을 숙박 피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호성지 피정의 집, 정하상 교육관, 논산 씨튼 영성의 집, 마산 가톨릭 교육관 등에서 대침묵 피정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하상 교육관을 많이 이용해왔는데 그곳 직원들로부터 침묵피정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피정하러 오신 다른 단체들에게 전주 가르멜 재속회 침묵피정을 모범으로 알려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언젠가 신부님께서 저희 재속회만 매년 2박3일 일인 일실 대침묵 숙박피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전주재속회의 회원 숫자가 적어서 이런 조건의 연피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도 10월에 잠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서 연피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느슨해진 회원들의 성사 생활을 다잡을 수 있었고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5월에 야외 월모임 행사를 하는데 한번은 고성수녀원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성 재속 회관에서 구역별 장기자랑 중에 어느 구역에서 연극을 하였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키도 크고 머리에는 예쁜 핀도 꽂고 가슴에는 브로치를 달고 한복을 입은 멋진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 공동체에 저렇게 멋진 여인이 있었나? 도대체 누구야?” 다들 연극 중에 계속 궁금해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여장을 한 사람이 유병환 요아킴형제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 회원들이 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형제님은 70대 중반인데도 젊은 여자보다도 더 예쁘게 여장을 하시고 아주 태연하게 연기를 잘하셔서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너무나 웃기고 재미있어서 수녀원 면회실에서 다시 연극을 했는데 수녀님들도 무척 즐거워

하셨고 격자 너머에 계시는 봉쇄수녀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해맑고 광채가 나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산 수도원, 성주 수도원, 인천 수도원 등으로 야외 월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에는 가르멜 수도원이 없어서 수도원을 방문할 기회가 다른 재속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야외 월모임 때라도 수도원을 방문하여 가르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가르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공동체에는 8~9명으로 구성된 7개 구역이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모임을 주로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그룹콜이나 단톡방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전주공동체 회원의 수는 1998년 17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 현재 단독회원 3명, 종신서약자 47명, 단순서약자 5명, 수련자 1명, 청원자 5명 총인원 61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공동체처럼 우리만의 재속회관을 갖고자 2010년부터 재속회관 건립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속회관 건립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여 모임 때마다 기도드리고 전 회원들의 점심 식사비 오천 원을 매달

적립하고 있으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금을 더해 지금은 1억 원 넘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모으면서 재속회관 건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던 중에 전주교구의 대표성지 치명자산 성지에 순교자들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며 새로운 복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평화의 전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편안하게 피정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성당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나눔실과 세미나실 공간이 여러 개 있어서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료와 월모임 및 각종 모임, 연피정 사용료 등에 대해서 평화의 전당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참사회와 회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3년 창립 25주년 행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전당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전주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모, 사부의 영성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고 하느님께 영광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15일 연피정을 마치고 정하상교육관에서

* 회원의 글 *

아름다운 만남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2020년, 모든 모임과 행사가 연기되고 취소되었다. 그중 하나, 5월 은경축을 10월 연피정으로 연기한 이유는 그때가 되면 제대로 된 축하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는데, 코로나19는 해를 넘겼다. 다섯 분의 은경축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두 분밖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나머지 세 분께는 직접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걸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수의 인원으로 방문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2021년 4월 12일, 약간 흐린 날씨에 단독 회원 이혜자 예수아기의 소화데레사님(81세)의 은경축을 위해 성당으로 향했다. 평소 어지럼증으로 미사에도 다니기 힘들었는데, 담당참사와 구역장만이 함께 하였지만 미사도 봉헌하고 성당 유아방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망토와 화관으로 예쁘게 꾸미고 은경서약 예식을 하였다. 제대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매우 흡족해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25년 은경서약을 축하드릴 수 있었다.

4월 19일 오전, 요양시설에 계시는 단독 회원 김순자 예수성심의 세실리아님(88세)께 방문하였다. 협조신부님께서도 동행해 주시어 한결 든든한 마음이었다. 방역관계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뵈었지만 스카폴라와 화관을 건네어 꾸며드리고 신부님의 강복과 은경서약문 사인,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치매기도 있고 휠체어도 타고 계

셨지만 환경이 괜찮았고 수녀님께서 돌봐 주시는 곳이라 잘 지내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은경축 하러 가야 된다고 내보내달라고 힘들게 하셨다는 말씀에 코끝이 찡했다. 신부님께도 찾아오시게 했다고 계속 송구스러워하시며 감사함으로 가득하셨다. 그동안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었었는데, 아드님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오후에는 뇌경색으로 위중하셨던 단독 회원 박희수 성모성심의 아네스님(89세)을 방문하였다. 따님과 사위 분이 함께 하여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많은 것을 못한다고 힘들어 하셨으나 신부님의 성사와 봉성체에 감사하셨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따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내고 계셨다. 신부님께서선 선종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는 자매님의 말씀에 당황했다고 하신다.

4월 28일, 성당에서 미사 후 자택으로 방문계획을 세웠다. 단독 회원 신용의 아기 예수의 소화데레사님(85세)은 작년에 참석 예정이셨는데 당일 복통으로 못 오시게 되어서 많이 안타까웠던 터였다. 혼자 기거하고 계셨으나 멀리 사는 큰따님과 둘째 사위, 몇몇 지인들이 은경축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더욱 기쁜 날이었다. 축하노래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은경축 방문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비록 예전과 같은 축하식은 못하지만 25년 세월을 재속회원으로 살아오신 선배들을 대하며 감동하였고, 몸은 노쇠하였으나 영혼의 청춘을 맞으신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은 충분히 귀감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1년 8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26장 해설:

기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거둠

1. 그룹으로 26장을 읽기

기도를 내면화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까?

필자는 본 장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강독을 위한 실마리들을 제시해 보았다.

- “생각을 거둬들여 기도하는 데” 잘 집중할 것.

- 성녀 데레사의 내면화 교육을 점진적으로 따라갈 것: 하느님 현존에 대한 훈련, 시선에 대한 훈련, 경청, 말씀, 기도하기 위한 근본적 자세 등.

- 성녀가 제시한 실천 수칙들을 모을 것. 그와 관련된 성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메모할 것. 그리고 6절에서 성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뤄갔는지 유심히 관찰해 볼 것.

- 성녀가 사용한 다양한 “이미지들” 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인 역할에 대해 성찰해 볼 것.

2. 텍스트에 대한 소개

1) 성녀는 여기서 “거둠”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관건이 되는 것은 기도(구송기도건 정신 기도건 모두) 중에 “어떻게 생각을 거둬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즉 어떻게 기도를 내면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보다 단순하고 관상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

2) 데레사는 26장 말고도 27장, 28장, 29장을 더 할애하는 가운데 이 “거둠” 주제를 다뤘다. 성녀는 앞의 두 장(26~27장)을 통해 기도 중에 생각을 거둬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시

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신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현존, 그분의 동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말한다.

성녀는 다음에 이어지는 두 장(28~29장)을 통해 거둠이 내포한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거둠이란 영혼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거둬들이고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3) 성녀의 거둠의 방법은 네 단계를 거치는 영(靈)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 그리스도께 주의를 집중한다.

- 기도를 내면화한다.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성의 여러 궁방으로 불러들인다.

- 그러나 이 둘에 앞서 ‘실천적인 덕행’이라는 좋은 바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가 삶과 유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또한 이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고 준비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거둠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며 그것을 관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본 장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주는 틀이 있다.

이제 데레사의 기도 교육에 있어서 보다 두드러진 요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첫째: 하느님 현존에 대한 훈련

기도는 “두 인격 사이의 일” 이자 “두 친구 간의 우정의 나눔” 이다. 그것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동반자를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따님들이여,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할 일은 짝을 가지는 일입니다” (1절). 여기서 성녀가 말하는 ‘짝’ 은 하느님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그분의 현존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토록

좋은 벗을 곁에 되시고 있습니다” (1절).

4. 둘째: 시선에 대한 훈련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리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특히 “그분께 눈길을 두십시오”, “눈길을 돌려 다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그분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자비심 많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분이 머리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와 같은 구절처럼 “시선”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혼의 눈”을 뜻한다. “그분을 향해 영혼의 눈을 돌리십시오” (3절).

‘영혼의 시선’ 또는 ‘영혼의 눈’은 예수께서 지상 여정동안 하셨던 말씀과 느끼셨던 감정, 수난을 통해 보여 주신 다양한 모습들을 반추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야 한다.

5. 셋째: 경청과 말씀에 대한 훈련

“다른 사람들과 곧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이 주님과는 이야기할 것이 없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9절)

성녀는 이러한 언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증했다. “여러분이 말할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9절).

6. 넷째: “습관을 들이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고집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훈련해야 하며 하느님에 대한 감각도 훈련해야 한다. 또한 피상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해야 하며 겸손을 몸에 배야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

기도에 충실하려면 집념과 향주적인 희망이 필요하다. “만일 한 해만으로 이를 수 없다면... 더 하십시오.”

7. 마지막으로: 거동에 대한 수사적 표현들

그것은 내적인 침묵과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사랑에 빠져 결혼한 여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 여기서 결혼한 여인은 영혼을, 신랑은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면화하는 거동은 상대방의 깊은 감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외적인 것으로 잡혀 “길을 잃은 영혼”의 이미지. 이 영혼은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기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 “벗으로서의 스승님”의 이미지. “여러분은 그런 벗을 곁에 되시는 일을 예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1절).

8. 강독에 있어서 어려움

성녀는 거동 기도를 하는데 있어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3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청하십시오. 얻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2절).

-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7절). 진정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어떤 어려움도 별것 아니라는 말이다.

- “약간의 열심만이라도” (8절). 여기서 는 단지 “약간의 열심”만 필요하다.

- “그분께서 종이 되십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벗인 우리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다.

- “좋은 로망스어로 된 책을 취하십시오” (10절). 이는 당시 통용되던 말로 된 책을 의미한다.

마음의 샘

친구, 오늘도 잠 못 이루는가?

우리 함께 지새운 밤이 멀리 가고 있다. 또다시 찾아올 밤을 기약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진실한 마음을 나누다보면 밤은 색을 잃어버린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대는 가끔 들뜨고 피상적인 상상의 유희를 즐기지만 우리 함께 눈 맞추는 밤이 오면 어느새 알몸을 드러내듯 진솔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다가온다. 우리의 눈 맞추므로 투명해지는 이 밤은 그래서 비밀 가득한 시간이다.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몸짓이 때로는 애처롭지만 내밀한 우정은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삶의 서사를 나누는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오늘 밤처럼 가슴 아픈 고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많아 힘들다면서 나의 고난 가득한 생을 관찰하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던 자네가 어느 날 슬한 결핍감과 갈증을 호소하며 내 눈을 쳐다보던 그 밤을 기억하는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많이 궁금해 하던 자네가 사색과 눈물이 친구처럼 어울릴 수도 있다며 울며 웃음 짓던 밤이다. 그러나 내가 흘렸던 피와 땀, 그저 가난했던 삶과 억울했던 언덕 위의 죽음을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무슨 해답을 찾겠는가? 기분 상하고 마음 산란한 하루를 보내면 갑자기 운명이 통째로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억누른 분노에 살 떨리며 보낸 날밤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항상 흔들리는 나무 같았던 자네의 처연한 독백이 한편 반가웠던 것은 오히려 그와 같은 불균형이 약동하는 내적 성숙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대 인생나무의 뿌리를 돌보고 있는 것을 아닐까? 겸손한 눈길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숨결을 보라. 나, **사람의 아들**의 생을 이끌어갔던 감춰진 사랑의 숨결을 발견하고 자네도 그 숨결로 살아가면 좋겠다. 자네의 갈증을 잘 살피고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잘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순간의 안녕이 불완전한 위로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밤마다 상처와 아픔을 치열하게 만남으로써 남모르는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었다는 역설을 기억하자. 한 번의 물로 영원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메마르지 않은 물길의 좋은 곳에 던져진 씨앗은 기어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의 친구여, 이제 오늘 밤에 나눈 우리의 비밀을 간직하며 나와 손잡고 믿음과 희망이 초대하는 거룩한 죽음의 밤으로 가자.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어 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셨으니, 목이 타서 죽을까 하고 걱정할 것을 없습니다.” (완덕 23, 5)

구요한

필자의 "마음의 샘" 글은 이번 호로 종결됩니다.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시간: 강연 13:40/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 강사 및 주제

날짜	6월 11일
강사	김영문 브루노 수사 (가르멜 광주 수도원 원장)
주제	소화 데레사 성녀의 기도

-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에게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서울 청년피정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시간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대상	20-40세 청년 (기혼/ 미혼 무관, 신자/ 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장소	가르멜 광주수도원
시간	7월 3-4일
대상	고등학생 이상(남자)

-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지하성당(오후 3시부터 개방)
- . 영성강좌, 성시간, 고해성사, 미사

날짜	지도
6월 26일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7월 31일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

첫도요신심미사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지하성당
-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10시부터 고해성사)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피정

- . 시간: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시 ~ 5시
- . 장소: 서울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

서울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인천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인천 가르멜 수도원
대구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30분 (기도) / 11시 (미사) 대구 재속가르멜 회관

-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이민정 성모성심의 안젤라 (향년 66세)
 - . 선종일 : 2021년 5월 6일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안순옥 십자가요한의 마리아(향년 91세)
 - . 선종일 : 2021년 4월 4일
 - . 청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홈페이지: <http://www.carmel.kr> / 유튜브: 가르멜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 관구

종신서약

- * 대전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1년 4월 21일
 - . 회원: 이득순 예수성심의 글라라
공혜란 예수자비의 베로니카
김혜영 예수마리아의 요셉피나
김경희 성모성심의 베네딕다
- * 대전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4월 25일
 - . 회원: 염성수 성면의 프란치스코
강입분 예수성심의 쟈마
이인자 기르멜 모후의 크리스티나
한미경 사랑의 마리아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4월 25일
 - . 회원: 한순복 예수성심의 체칠리아
김영미 예수마리아요셉의 마리안나
김태숙 예수의 로사
- * 대전 예수의 성녀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4월 28일
 - . 회원: 박미화 가르멜의 모후 루피나
박순옥 성모성심의 벨라뎃파
-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5월 2일
 - . 회원: 장세순 예수의 말지나
오요셉 예수마리아의 요셉
김해경 십자가의 로사
- * 부산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날짜: 2021년 5월 9일
 - . 회원: 김대홍 십자가의 유스티노
윤옥환 성모성심의 소화데레사

-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5월 9일
 - . 회원: 임영순 예수성심의 골롬바
김정희 성가정 요셉의 바오로
김정숙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마리아
안진옥 성모성심의 마리아
이명희 하느님 말씀의 카타리나
한은영 예수성심의 헬레나

은경축

-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다 공동체
 - . 날짜: 2021년 4월 27일
 - . 회원: 김재심 부활의 유스티나
최경자 예수의 소화데레사
오영자 예수마리의 헬레나
이상림 가르멜 성모의 제노베파
문미자 성면의 젤뚜르다
-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 . 날짜: 2021년 5월 5일
 - . 회원: 박정순 예수성심의 헬레나
김덕순 아기예수의 소화데레사
채태주 예수성심의 카타리나
- * 수원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5월 10일
 - . 회원: 최정옥 십자가의 마리아
이양순 예수성심의 율리안나
은화자 스승예수의 헬레나
이성자 예수성심의 마리안나
김명자 영해예수의 아네스
-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 . 방문 은경축(2020년 단순서약 25년)
 - . 날짜: 2021년 4월
 - . 회원: 김순자 예수성심의 세실리아
신용의 아기예수의 소화데레사
이혜자 예수아기의 소화데레사



왼쪽부터
김순자 예수성심의 세실리아
신용의 아기예수의 소화데레사
이혜자 예수아기의 소화데레사



부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대전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대전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수원 성 요셉 공동체(은경축)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은경축)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은경축)



예수님의 눈물

그려보는 당신의 심장
누구는 사랑이라 하고
누구는 눈물이라고 하네

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는가?